

교과서 연구

100

교과서연구 2020년 여름 통권 제100호

특별기획 100호, 『교과서연구』를 말하다

교육진단 현장의 원격 교육 경험이 시사하는 미래 교과서 발전 방향

연구논문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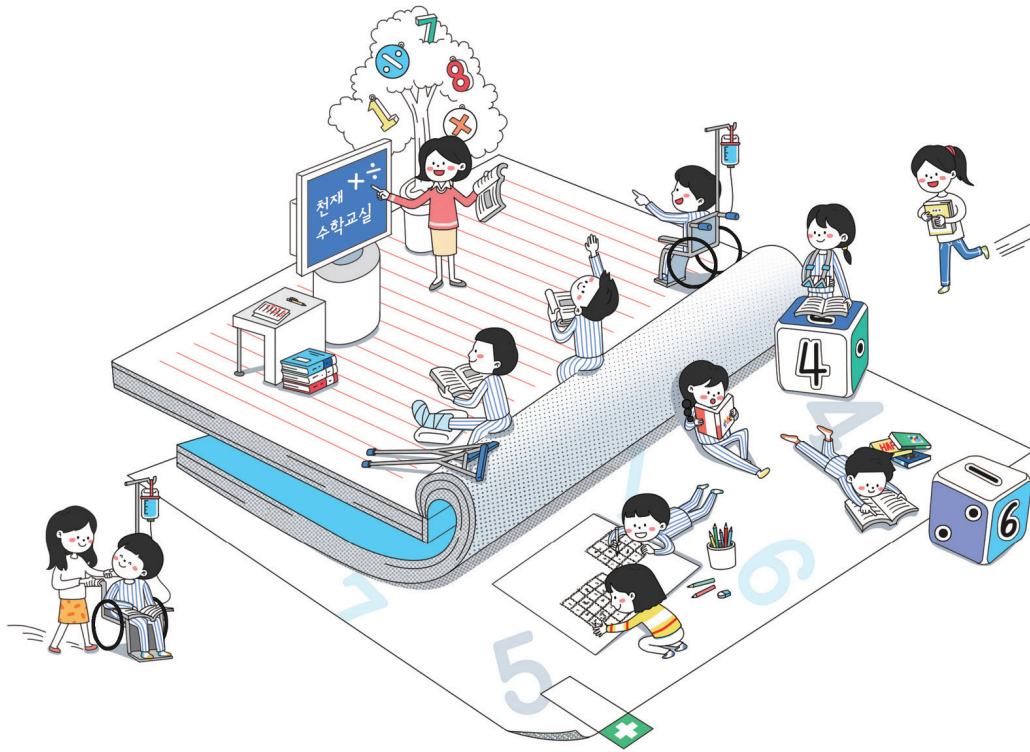
국제동향 핀란드의 컴퓨터 교육

현장교육 코로나 시대의 독서 교육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통해 바라본 영화와 관객의 상관관계

교과서 개발자 이야기 지도를 통해 모든 것이 자리매김 된다

탐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공부를 넘어 희망을 나눕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도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도
 맘껏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천재교육의 학습봉사단.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큰 용기로 이어지길 바라며
 천재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뜻을 실천하며
 세상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이 환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주 1회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 수업 진행

☪ 착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동행, 천재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 장학금 후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데이터 지원 / 고도 약시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교재 개발

Contents



교과서연구

2020년 여름 통권 제100호

발행일 2020년 6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바 00063호

발행인 김홍구

기획편집위원장 박제운

기획편집위원 김경희, 김훈범, 류상희
손병길, 이화성, 홍미화

간사 변자정

발행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우 065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전화 02-6206-6362 팩스 02-2651-1954

Homepage <http://textbook.ac>

e-mail bjj819@textbook114.com

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인쇄 (주)미래엔 02-3475-4092

정가 3,000원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발행처인 한국교과서연구재
단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 - 100호, 『교과서연구』를 말하다

- 006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 김홍구
- 010 『교과서연구』의 발자취 | 김만곤
- 023 한국 교과서 연구의 등불 | 손명철
- 028 하얀 비닐 속에서 나온 책 | 백종민

교육진단

- 036 현장의 원격 교육 경험이 시사하는 미래 교과서 발전 방향 | 김진숙

연구논문

- 054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 | 박상훈

국제동향

- 068 핀란드의 컴퓨터 교육 | 박판우

현장교육

- 074 코로나 시대의 독서 교육 | 하교운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 080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통해 바라본 영화와 관객의
상관관계 | 황보성진

교과서 개발자 이야기

- 087 지도를 통해 모든 것이 자리매김 된다 | 김경진

탐방

- 096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안내사항

- 104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
- 105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 106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109 원고 모집
- 110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112 교과서 원문 DB 이용 협약

教科書研究

創刊號

韓國2種教科書協會

창간호 1988년 12월

教科書研究

第3號

韓國2種教科書協會

제3호 1989년 9월

教科書研究

第12號

韓國2種教科書協會

제12호 1992년 4월

제31호

교과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소

제31호 1998년 12월

교과서연구

www.kifre.kr

2005. 4 제44호

창간 60주년, 교과서 제도 변천 회고와 전망

- 교과서 연구 동향
- 교과서 연구 방법
-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교과서 연구의 미래와 전망
- 교과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제44호 2005년 4월



교과서연구

2011. 3. 제 63호

제63호 2011년 3월

100호, 『교과서연구』를 말하다

『교과서연구』가 1988년 12월의 첫 호를 시작으로 어느새 1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발행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저널로서의 자부심으로,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관계자들의 소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 김홍구

교과서연구의 발자취 | 김만곤

한국 교과서 연구의 등불 | 손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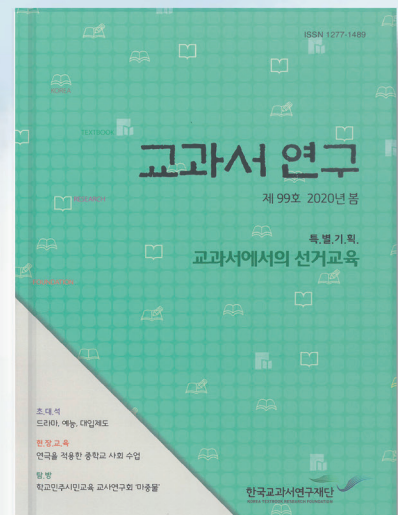
하얀 비닐 속에서 나온 책 | 백종민



제71호 2013년 3월



제75호 2014년 3월



제99호 2020년 3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홍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1988년 12월 탄생한 『교과서연구』가 어느새 1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숏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과서연구』가 꾸준히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의 노고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과서연구』를 구독과 조언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귀중한 원고를 작성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과서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수많은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 주신 편집 위원님들, 원고를 보기 좋은 책자로 꾸며 주신 디자인, 인쇄를 담당하신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서연구』 발행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핵심 사업으로서, 교과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성과, 교과서 제도·정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과서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 100호 발행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냉철히 분석하여 『교과서연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초연결 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에 대

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지위와 성격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경전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갖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교과서가 교육을 위한 주요한 자료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제도가 자율화·다양화됨에 따라 전체 교과용 도서 중에서 인정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금년 1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형태의 인정 심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 흐름 속에서 『교과서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 편집위원 토론 등을 거쳤습니다.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1%가 『교과서연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구독방법으로 서책 59.4%, 서책과 온라인 병용 20.3%, 온라인 20.3%로 나타났으나, 앞으로의 바람직한 이용 방법으로 온라인, 서책, 온라인 및 서책 병행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교과서연구』가 지향해야 할 저널의 성격으로 현장 지원, 학술지, 소식 전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 변화가 일어난 다양한 사례 소개’, ‘교과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 내용 확대’, ‘교과서에 대한 현장 반응과 모니터링 안내’, ‘독자 투고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연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대략적인 구상 수준으로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조사 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교과서연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제1조에는 “이 법인은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정책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동향과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의적절한 의제를 발굴하고 국제교과서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연구, 토대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내외 교과서 연구 성과, 정책 동향,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교과서연구』를 통해 널리 알리겠습니다.

교과서연구

100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교과서 분야에서도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과제가 많습니다. 등교가 미루어지고 이를 대신하여 원격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과서 공급 방식의 개선과 교과서의 디지털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서책형 교과서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교사와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원격 교육 활성화와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재 제작 및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연구』의 현장지원과 소통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교과서 제도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질 관리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교과서 질 관리는 상시적이면서 사용자 입장이 강조되고, 여러 주체가 참여·소통하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교과서연구』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과서 개발 주체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학생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실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과서연구』 개편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과서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과서 활용으로 수업 혁신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확산하겠습니다.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라 현장의 교사가 교육 경험과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업의 질 제고와 교사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자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현장성 높은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하면 교육의 현장 적합성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이해, 교과서 집필 방법,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연구』 제작·보급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번 100호부터 변신을 꾀하였습니다. 공급 방식을 서책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판형 개선, 전면 컬러 인쇄를 적용하여 외형을 일신하였습니다.

『교과서연구』 편집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연구자, 교원, 발행사,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유능한 분들을 필진이나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교과서연구』지가 독자에게 더욱 사랑받고 교과서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를 기대합니다.

『교과서연구』의 발자취



김만곤

비상교육 자문위원,
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위원

I. 『교과서연구』 발간의 의의

『교과서연구』의 발간은 ‘국내외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자료 전시관(교과서정보관)’ 운영과 함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핵심 사업이다. 재단 사이트(www.textbook.ac)에서 주요 추진 사업을 찾아보면 대략 10종의 자체 사업들 중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간헐적으로 혹은 여건에 맞추어 추진되어 온 것에 비해 이 저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발간되어 교과서정보관 운영과 함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내외적으로 교과서 정책 연구, 교과서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교과서 전문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실제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함수곤(1996), 한명희 외(2001), 김만곤(2008) 등 세 차례에 걸친 재단 발전 방안 연구에서도 『교과서연구』의 발간은 공통적으로 1순위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재단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기본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연구』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 관련 전문 저널로서, 재단의 자체적 노력은 물론 교육부와 여러 관련 기관, 교과서 전문 출판사 등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령 100호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전문지로서의 성장에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저널이 그만큼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교과서연구』

는 교과서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여론,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 제도, 교육과정, 편수·편집 실무, 교육 자료, 현장 연구, 선진 출판사 탐방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어야 하겠지만(김만곤, 2008) 피상적으로 보기에 이 저널의 독자층이 지령에 비해 과연 얼마나 두터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교과서연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는지 소략하게 그 내력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I. 『교과서연구』의 변천

『교과서연구』는 1988년 12월,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교과서 연구를 통해 한국 교육의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창간했다. 협회에서는 연간 3회씩(1990년은 4회) 약 10년간 30호(1998.5.30.)까지 발간했고, 1992년 8월 12일에 설립되어 자리를 잡게 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이관하여 1998년 12월 31호부터 현재까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시행해온 체제와 유사하게 교과서 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 분야별·학교급별 전문가,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2004년까지 7년간은 연간 2회씩 매년 6, 12월에, 2009년까지 5년간은 연간 3회씩 4, 8, 12월에 발간했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연간 4회씩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가지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 행정 기관, 교과서 출판사 등에 배포하여 왔다. 다음에는 창간호부터 99호까지의 내용 구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창기의 『교과서연구』 원고들은 우리의 열정과 순박함 같은 것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학창 시절 앨범처럼 미소를 짓게 하면서도 그 열정과 의욕, 자부심 같은 것들이 울울이 드러나 일면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창간호(1988.12.)는 매우 단조롭게 창간사와 논문 5편, 자료(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만으로 구성되었고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모두 출판사 관계자들이었다.

창간호 목차 구성

- 창간사 - 교육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고자(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사장 이종태)
- 논단 - 검인정 교과서의 변천사(장왕교재연구원 이대의)
 - 2종 교과서의 변천
 - 활자 발명의 역사적 변천과 가로쓰기 활자체 개발(보진재 이달훈)
 -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의 지질과 색도 문제에 관하여(동아출판 김현식)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2종도서 관계 조항의 개정 방안(교학사 양철우)
- 자료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8.20. 대통령령 제8660호

제2호는 창간호보다는 다양한 원고로 구성되었고 이때부터 특집 원고가 실리기 시작했다. 『교과서연구』의 꼴을 갖추고 교과서 편집인들의 애환과 노력상이 배어 있는 제2호의 목차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호 목차 구성

- 권두언 -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종태)
- 권두논문 - 교과서의 본질과 교과서의 연구(한국정신문화원 홍웅선)
- 특집 - 교과서 체제 개선에 관한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정태범)
 - 국어 교육의 제문제-현장 교육을 중심으로(이대부중 교사 정윤환)
- 논단 - 현행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업계의 동향(장왕교재연구원 이대의)
 - 외국의 교과서 공급 제도-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곽상만)
- 기획연재 - 교과서 편집론(출판문화연구소 문병덕)
- 단상 - 졸속 집필과 졸속 심사를 벗어나자(지학사 김영철)
 - 바람직한 교과서(지학사 조경래)
 - 승리 없는 전투(동아출판사 김철진)
 - 그래도 편집자는 외롭지 않아(동아출판사 최봉숙)
 - 교과서 편집을 마치고(금성교과서 주용준)
 - 바람직한 저자상(像)(민문고 조성준)
 - 교과서 유감(교학사 김춘규)

창간호부터 99호까지 『교과서연구』의 중심내용이 되어온 특집 원고의 주제와 필자 구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특집 주제와 필진 구성

연 도	호	주 제	필진 구성*
1988.12.	1	* 논단(5편)	출판 4 등
1989. 6.	2	교과서의 체제 개선에 관한 고찰(1편)	교수 1
		국어 교육의 제 문제-현장 교육을 중심으로(1편)	교원 1
1989. 9.	3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향-세미나(3편)	교수 2, 연구 1
1989.12.	4	교과서관의 정립과 교과서 정책의 방향 모색(4편)	국회의원 4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향-교과서 개선을 위한 토론(10편)	교수 5, 출판 3, 교원 1, 언론 1
1990. 3.	5	영어 교육과 영어 교과서(1편)	교수 1
		현장 교사가 본 개편 중학교 교과서(9편)	교원 9
1990. 6.	6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부산(5편)	교원 5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대구(6편)	교원 6
1990. 9.	7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광주역(6편)	교원 6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대전(5편, 토론 1편)	교원 5
1990.12.	8	현행 중학교 2종 교과서 평가(17편)	교수 8, 교원 5, 연구 2, 행정 1
1991. 4.	9	수학 교육과 중학교 수학 교과서(토론)	-
1991. 8.	10	제6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세미나(3편)	행정 2
		1991 교과서 개선을 위한 세미나(5편)	교수 3, 연구 2
1991.12.	11	(특집 주제 없음)	-
1992. 4.	12	고등학교 문학 작문 교과서와 국어(발제와 토론)	교수 1
1992. 9.	13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발제, 토론 3편)	교수 3, 출판 1
1992.12.	14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세미나(3편)	행정 3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9편)	교수 5, 출판 4
1993. 4.	15	새 입시 제도와 학교 교육(좌담)	-
1993. 8.	16	교육 발전과 교과서 개발(11편)	교수 4, 연구 3, 출판 2, 행정 2
1993.12.	17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11편)	교수 2, 교원 7, 학부모 1, 언론 1
		중학교 2종도서 검정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16편)	행정(교육부 편수직) 14 등
1994. 4.	18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3편)	행정 1, 언론 1, 출판 1
1994. 7.	19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 기준(안)에 관한 공청회(6편)	행정 3 등
1994.12.	20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안 공청회(20편)	교수 10, 교원 2, 국회의원 2, 연구 3, 학부모 1, 행정 1, 출판 1
1995. 4.	21	교과서 제도의 개선과 앞으로의 과제(2편)	연구 1, 행정 1

연 도	호	주 제	필진 구성*
1995. 8.	22	2종 교과서 선정 어떻게 해야 하나(4편)	교원 2, 행정 1, 학부모 1
1995.12.	23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 기념(5편)	교수 4, 연구 1
1996. 5.	24	제3차 대통령 보고 교육 개혁 방안 검토(3편)	교수 2, 행정 1
1996. 7.	25	교과서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6편)	연구 4, 행정 1, 출판 1
1996.11.	26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평가(4편)	교수 3, 연구 1
1997. 4.	27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의 다양화(2편)	행정 2
1997. 8.	28	열린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혁(4편)	교수 2, 연구 1, 행정 1
1997.12.	29	좋은 교과서를 만듭시다(5편)	행정 1, 연구 1, 출판 1, 교원 1, 교수 1
1998. 5.	30	제7차 교육과정 개정(2편)	행정 2
1998.12.	31	한국교과서연구소의 과제와 전망(6편)	교수 4, 교원 1, 출판 1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개념의 재정립(5편)	교수 1, 행정 1, 연구 3
1999. 6.	32	초등학교 실험용 교과서 이렇게 편찬했다(5편)	연구 4, 교수 1
1999.12.	33	뉴 미디어 시대의 우리 교육(4편)	교수 2, 연구 1, 행정 1
2000. 6.	34	교과서 자유 발행 도서 제도의 의의와 방향(5편)	교수 2, 연구 2, 행정 1
2000.12.	35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 편찬(14편)	행정 13, 연구 1
2001. 6.	36	중학교 1학년 2종 교과서의 특징(10편)	행정 6, 연구 4
2001.12.	37	정보 통신 기술 활용 교육(7편)	교수 3, 행정 4
2002. 6.	38	고등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10편)	행정 10
2002.12.	39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6편)	교수 2, 교원 2, 출판 2
2003. 6.	40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략(5편)	교수 1, 교원 1, 행정 1, 연구 1, 출판 1
2003.12.	41	교과서 제도 현안 및 과제(7편)	교수 3, 연구 1, 행정 1, 출판 2
2004. 6.	42	제7차 교과서 평가-분야별(5편)	교수 1, 교원 2, 출판 1, 행정 1
2004.12.	43	바람직한 교과서 발행 제도의 발전 방안(10편)	교수 1, 연구 3, 교원 2, 행정 1, 출판 3
2005. 4.	44	광복 60주년, 교과서 제도 변천 : 회고와 전망(6편)	교수 2, 교원 1, 행정 2, 연구 1
2005. 8.	45	국어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5편)	교수 2, 교원 2, 연구 1
2005.12.	46	수학·영어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6편)	교수 4, 연구 2
2006. 4.	47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5편)	교수 2, 연구 2, 교원 1
2006. 9.	48	과학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6편)	교수 2, 연구 1, 행정 2, 출판 1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국어연구원 간 업무협정의 경과와 과제(3편)	행정 1, 연구 1, 출판 1
2006.12.	49	예술·체육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6편)	교수 1, 연구 3, 교원 1, 행정 1
2007. 4.	50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5편)	행정 5

연도	호	주제	필진 구성*
2007. 8.	51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5편)	연구 2, 행정 1, 교원 1, 출판 1
2007.12.	52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6편)	교수 5, 연구 1
2008. 4.	53	교육과 교육과정 정책 동향(7편)	행정 4, 연구 2, 교원 1
2008. 8.	54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7편)	교수 3, 연구 2, 행정 1, 교원 1
2008.12.	55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6편)	행정 4, 교원 1, 출판 1
2009. 4.	5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6편)	교수 3, 연구 2, 행정 1
2009. 8.	57	인정도서 확대 정책, 그 내용과 전망(5편)	연구 2, 행정 2, 출판 1
2009.12.	58	미래형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의 미래(6편)	교수 3, 연구 2, 행정 1
2010. 3.	59	2010 교과서 선진화 방향의 구현(7편)	교수 1, 연구 4, 행정 1, 교원 1
2010. 6.	60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위한 과제(4편)	교수 2, 행정 2
		교과서 선진화의 길(특별 대담)	교수 1, 행정 1, 연구 1, 교원 1, 출판 1
2010. 9.	61	교과서 집필로 본 교과교육과정(7편)	교수 6, 연구 1
2010.12.	62	교과서 채택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6편)	행정 3, 교원 3
2011. 3.	63	좋은 교과서-체육·음악·미술(7편)	교수 1, 행정 1, 교원 3, 출판 2
2011. 6.	64	좋은 교과서-도덕·사회·역사(5편)	교수 4, 출판 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2011: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16편)	교수 5, 연구 2, 교원 4, 언론 1, 출판 2, 행정 2
2011. 9.	65	좋은 교과서-수학·과학·실과(기술·가정)(8편)	교수 3, 연구 2, 교원 2, 출판 1
2011.12.	66	좋은 교과서-국어·영어·제2외국어(9편)	교수 2, 연구 2, 교원 3, 행정 1, 출판 1
2012. 3.	67	인정도서 정책의 방향(5편)	교수 1, 연구 1, 행정 2, 출판 1
2012. 6.	68	인정도서 정책의 구현 방향(8편)	연구 2, 행정 5, 출판 1
2012. 9.	69	초등 국정도서, 이렇게 만든다(7편)	교수 6, 행정 1
2012.12.	70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 교육 동향(17편)	교수 6, 연구 2, 교원 2, 행정 3, 출판 4
2013. 3.	71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연구의 방향(특별 좌담회)	-
		나는 이런 교과서를 찾는다(9편)	교원 9
2013. 6.	72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6편)	교수 5, 연구 1
2013. 9.	73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8편)	교수 6, 연구 1, 교원 1
2013.12.	74	2013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9편)	교수 5, 연구 1, 교원 2, 행정 1
2014. 3.	75	인정도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6편)	교수 1, 연구 2, 행정 3

연 도	호	주 제	필진 구성*
2014. 6.	76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1)(8편)	교수 3, 교원 3, 행정 1, 출판 1
2014. 9.	77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2)(18편)	교원 7, 학생 7, 학부모 3, 행정 1
2014.12.	78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넓게! 깊게! 다양하게!(9편)	교수 4, 연구 2, 교원 2, 행정 1
2015. 3.	79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1)(6편)	교수 4, 연구 2
2015. 6.	80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2)(6편)	교수 3 등
2015. 9.	8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5편)	교수 2, 연구 3
2015.12.	82	2015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달라지는 교과서 구성-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8편)	교수 3, 연구 3, 교원 1, 행정 1
2016. 3.	8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4편)	교수 3, 행정 1
2016. 6.	84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과서의 발전 방향(4편)	교수 3, 교원 1, 행정 1
2016. 9.	8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방향(5편)	교수 1, 연구 1, 교원 2, 출판 1
2016.12.	86	2016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내의 평가(7편)	교수 3, 연구 3, 교원 1
2017. 3.	87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용도서의 특징과 활용 방안(4편)	교원 4
2017. 6.	88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2편 및 교원 좌담)	행정 2 및 교원
2017. 9.	89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초등학교)(5편)	교원 5
2017.12.	90	2017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 체제(7편)	교수 3, 연구 1, 교원 2, 출판 1
2018. 3.	91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군 교과서의 특징과 활용(6편)	교수 6
2018. 6.	92	새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5편)	교원 5
2018. 9.	9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4편)	교원 4
2018.12.	94	2018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과서(12편)	교수 3, 연구 3, 교원 1, 학생 1, 학부모 1, 출판 2, 행정 1
2019. 3.	95	환경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5편)	교수 2, 교원 3
2019. 6.	96	인구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4편)	교수 2, 교원 2
2019. 9.	97	진로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5편)	연구 2, 교원 3
2019.12.	98	2019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교과서 자유 발행제 안착을 위한 교과서 질 관리 방안(11편)	교수 4, 연구 4, 교원 1, 출판 1, 학부모 1
2019. 3.	99	교과서에서의 선거 교육(3편)	교수 2, 교원 1

* 연구: 연구소 직원 및 연구회 대표, 행정: 교육부·교육청 직원 등, 교원: 교장·교사, 출판: 출판사 대표 및 직원, 언론: 기자 등

『교과서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과 제도의 변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특집 주제들은 교과서 정책 추진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부지런히 수행해 왔다.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 소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창의적 활용 방안 모색, 교과서 평가, 교과서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특집 구성은 물론이고 특히 1990·2003·2011·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교과서에 대한 성격 규명과 좋은 교과서 개발 전략 모색, 좌담회·세미나·공청회 개최 등은 그러한 의도와 노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특집 원고 외에도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4월에 발간된 21호의 경우 ‘과연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13명(교육부 편수직 1, 교수 3, 교사 3, 출판사 직원 3, 연구원 1, 학부모 2명)의 논단 원고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교과서연구』를 통해 획기적·결정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단기간의 원고 집필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요구와 의욕도 보여 주고 있다. 가령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안 공청회,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 자유 발행 제도의 의의와 방향(2000.6.), 교과서 제도 현안 및 과제, 교과별 교과서 발전 방향, 디지털 교과서 가능성,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위한 과제와 같은 주제들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와 관심을 잘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끔은 의욕적인 관점으로 광범위한 주제들도 설정하여 왔다. ‘새 입시 제도와 학교 교육(좌담, 1993)’, ‘대통령 보고 교육 개혁 방안 검토(1996)’, ‘열린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 개혁(1997)’,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개념의 재정립(1998)’, ‘뉴 미디어 시대의 우리 교육(1999)’, ‘정보 통신 기술 활용 교육(2001)’,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2008)’, ‘미래형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의 미래(2009)’ 등은 시대의 흐름을 보여 주면서 우리 교육 전반에 관한 『교과서연구』의 관심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011년에 시작된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지상 중계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면모를 보여 주는 특기할 만한 기록이 되고 있다.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2011)’,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2012)’,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2013)’,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2014)’, ‘달라지는 교과서 구성-지식 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2015)’,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서 내의 평가(2016)’,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 체제(2017)’,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과서(2018)’, ‘교과서 자유 발행제 안착을 위

교과서연구

100

한 교과서 질 관리 방안(2019)’으로 이어진 이 심포지엄의 주제들은, 그동안 교과서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심포지엄도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다. 202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전고미증유의 변화를 맞게 된 교육의 방향, 교재의 성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 직접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 설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교과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교과서 발전과 개혁을 위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수준 높은 행사의 가능성도 열어 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88년 12월의 창간호로부터 100호 발간을 목전에 둔 최근까지의 흐름 중에서 몇 가지 인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한다.

초기의 『교과서연구』를 살펴보면 그 내용 구성이 소박하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향이였다. 창간호와 제2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후 한동안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개선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한 특집 중심으로 편집되었는가 하면 때로는 교과 교육을 중시하여 21세기를 향한 우리 교육의 위상을 교과 교육의 발전 측면에서 다루는 등 시기별로 긴요한 주제를 설정하고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국 각 지역별 좌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원고를 실었다. 집필진도 교수, 연구원, 행정가는 물론 국회의원, 교사, 출판사 편집인과 대표, 학부모 등의 이름이 자주 보여 다채로움을 더해 주었다. 가령 1994년 4월에 발간된 제18호의 경우에는 권두논문, 특집, 교과교육, 논단, 교과용도서 현장 적용, 연재, 탐방, 단상, 보고(현장교육 연구보고), 자료 등 37개 원고가 실렸는데 필자로는 교수, 교사, 교육 행정가 외에도 변호사, 논설위원, 출판사 직원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현재의 『교과서연구』와 비교하면 다소 비체계적이긴 하지만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유연성·다양성을 보여 주던 형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형식성·논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경향이 이전보다 비교적 획일적이고 단조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필진 구성에서 출판사 편집진이나 현장 교사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그러한 경향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혹은 어떤 점에서 더 유익한 것인지. 어떤 반성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비교적인 관점에서 제99호(2020.3.)의 목차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99호 목차 구성

- **특별기획** : 교과서에서의 선거 교육
 - 선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 김명정
 -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선거 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참정권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과제 / 이윤주
 - 중등학교에서 선거 연령의 하향에 따른 시민 교육의 과제 / 배영민
- **연구논문**
 - 과학과 핵심 역량에 대한 통합 과학 교과서의 반영도와 학생들의 인식 / 김현섭
- **국제동향**
 - 떠오르는 교육 강국, 에스토니아의 학교 교육 / 김현정
- **현장교육**
 - 연극을 적용한 중학교 사회 수업 / 구민정
- **초대석**
 - 드라마, 예능, 대입 제도 / 진동섭
-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군 효명 세자와 춘앵전 / 엄예나
- **교과서 개발자 이야기**
 - 또 다른 나의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되었고... / 성영란
- **탐방**
 - 학교민주시민교육교사연구회 '마중물'
- **안내사항** : 『교과서연구』 온라인 간 안내, 원고모집,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 교과용 도서 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교과서 개별 구입, 교과서 원문 DB 이용 협약

Ⅲ. 『교과서연구』의 앞날을 위한 제언

『교과서연구』 독자들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외의 의견 청취 없이 『교과서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보다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로 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혹 착안 사항이 된다면 별도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시도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과서에 관심이 없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여기거나 소규모일지라도 『교과서연구』가 교과서에 대한 관심에 비

례하는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무용한 관점일 뿐 아니라 결코 그렇지도 않다. 사실은 학창 시절이나 자녀 교육 기간을 지낸 다음에도 내내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어서 사람들은 다만 교과서에 대해 이런저런 추억만 간직하게 될 뿐이다.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연구』가 이제 100호 발간을 목전에 두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교과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기초적 연구 사업을 면면히 추진하고 있다면 『교과서연구』의 발간 또한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게 된 것이다. 외부의 직접적·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노력의 성과 여부에 따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교육과 교과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교과서’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해도 가르치고 배울 교재는 필요할 것이므로 ‘교과서연구’는 언제나 ‘교재’에 관심 깊은 모든 이들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그렇게 되는 날을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오늘 당장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교육에도 ‘미증유의 변화’가 다가왔다. 그 변화는 우리의 기대나 희망을 반영해 주지 않고 찾아왔다. 즉, 이 변화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어서 『교과서연구』처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저널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증대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교육의 과거보다 전혀 예기치 못한 미래의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시대가 너무나 빨리 닥쳐온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교수, 교사, 행정가 중심의 ‘독점적’ 원고 집필을 탈피해서 폭넓은 분야의 자원 인사들로부터 교과서(교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과서로 생활하는 사람들(예: 출판사 편집인, 교사)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저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인사들의 폭을 장차 학생들이 진출하게 되는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발간 체제 문제이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연구기관의 저널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북으로 전환되었다. 『교과서연구』도 100호(2020.6.1.)부터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늦었고 미흡하지만 잘된 일이다. 미흡하다는 것은 대학, 시도 교육청, 연구기관 등은 종전대로 종이책을 그대로 배포하고 초·중·고등학교만 온라인 발행 대

상으로 하여 종이책 배부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이는 결코 종이책 배부 대상을 앞서는 계층으로 우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선진화한 독자층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 언제 또 전체 배부 대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단안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하루속히 전체를 디지털북 배부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심스럽고 어렵다면 실제로 요청을 받아서 특별히 종이책을 요청하는 기관과 아직도 종이책을 찾는 사람이 많은 도서관 정도를 남기고 디지털화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 저널의 독자를 기관회원제(機關會員制)로부터 개인회원제(個人會員制)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도서나 자료의 수가 적어서 이러한 저널이 귀하고 소중하게 취급되는 시대가 아니다. 즉 교육기관, 행정기관, 출판사 등의 직원들이 그 기관에 배달되는 한두 권의 월간지나 저널을 기다려 열독하는 시대가 아니다. 또 학교나 교육청, 출판사에서 계간으로 배달되어 오는 ‘친절한’ 저널에 대해 특별히 고맙게 여기기도 어렵거니와 종이책인 『교과서연구』가 101호부터 배달되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를 하거나 섭섭해 할 기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 영역의 저널을 아무나 볼 수 있는 종이책으로 인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스스로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고, 가령 직원이 500명인 기관에서 일부 직원들이 이 저널을 보겠다고 줄을 설 것 같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독자들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찾아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시대이며, 그러한 경우의 지식과 정보라야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요청하지도 않는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은 오히려 귀찮게 여길 뿐이다. 그러므로 이 저널을 종이책으로부터 디지털북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개인회원제를 도입·적용하는 과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다. 회원이 되고자 할 때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독자들은 마침내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인쇄와 배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된다면 원고료를 차등 지급할 수도 있고 정책·학술 연구비로 전용할 수도 있다. 또 회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광고료 인상 등으로 재단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의 무가지 배포 대상은 아무리 많아도 광고주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과서연구』의 기획·편집위원회 구성 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의 정관과 이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고 저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추진 역량을

교과서연구

100

가진 기관이나 개인(개인의 경우 위원장으로 공모)을, 사업 추진 기간(예: 향후 2년간 혹은 105~112호)과 사업 내용, 추진 절차와 요령, 사업비 등을 밝힌 공모를 통해 편집을 주관할 기관(혹은 개인)으로 선정해 주면 재단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그 기간 동안 이 저널을 위탁 발간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경우 기획·편집위원장의 자격으로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의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기보다 재단 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을 제출받아 이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재단에서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교과서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범박한 제안을 한 것이므로 가상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 

필자 소개

1969년에 교사가 되었고 2010년 봄에 퇴임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실천·평가하면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많이 혹은 귀신같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백 배는 더 중요하다는 교사 시절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 한때 교육부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적도 있다.

한국 교과서 연구의 등불

I 교과서 연구에 등불을 켜다

2020년 여름이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하는 『교과서연구』가 통권 100호를 맞는다. 1980년대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본격적인 교과서 연구의 등불을 밝힌 이래, 근 40년 만에 통권 100호라는 작지만 소중한 기념탑을 쌓게 된 것이다. 『교과서연구』는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초기에 매년 1~2회 발간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 3회, 그리고 2010년부터는 연 4회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행되면서 명실상부한 계간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발간 횟수뿐만 아니라 매호 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평균 150면 내외의 분량으로 발간된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특별기획 주제를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교과서 연구를 넘어 한국 교육 전반에 이론적,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및 정책, 주요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교과서관련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으며, 교사, 교수, 연구자뿐 아니라 출판인, 학부모, 학생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담아냄으로써 교과서 연구와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한국 교과서 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글은 『교과서연구』 통권 100호를 기념하여 오랫동안 『교과서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잡지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과서 연구에 기여해 온 주요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손명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II. 교과서 연구에 등불을 비추다

현시점에서 볼 때 『교과서연구』의 주요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무엇보다 지난 40여 년간 시의적절한 특별기획을 통하여 한국에서 교과서연구를 선도하여 왔으며, 교과서와 관련된 국내외 여러 분야의 쟁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또한 교과서나 교육과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교과서 연구와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1. 시의적절한 특별기획 주제 설정과 심층 연구

『교과서연구』는 그동안 특별기획란을 통해 모두 90여 개의 특집 주제를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집주제는 보통 5개 정도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해당 주제나 과목,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발표, 토의에 참여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맞춰 해당 교육과정의 주요 강조점을 소개하고, 그에 걸맞은 교과서 개발 방안을 다루는 등 시의성 높은 주제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과연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인가와 같은 바람직한 교과서상에 대한 주제(9차례)와, 교과서 발행 제도와 정책에 관한 주제(8차례)도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를 거쳐 지금은 자유 발행제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옴으로써 한국 교과서 발행 제도의 민주화, 자율화 추세를 앞장서 견인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가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은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안목과 통찰력을 제고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2011),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2012),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2013),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2014), 달라지는 교과서 구성-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2015),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내의 평가(2016),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 체제(2017),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과서(2018), 교과서 자유 발행제(2019) 등 적실성 있는 주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그 과정을 지면에 상세히 게재함으로써 교과서 연구와 논의를 주도하여 왔다.

2. 교과서와 관련된 논의의 지평 확장

『교과서연구』는 특별기획 말고도 매우 폭넓고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연구논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는 ‘현장교육’, 교육 관련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인사를 만나 인터뷰하거나 알리는 ‘초대석’, 교과서에 실린 각종 작품들에 얹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겪는 애환을 담아낸 ‘편집자 이야기’, 그리고 교과연구회나 교사 모임, 출판사 편집인을 만나 취재한 ‘탐방’ 등이 그것이다. 이들 코너에서는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 교과서 발행 제도와 정책, 교육 자료, 최근의 교육 이슈와 연구 동향, 해외의 교육 사례 등 여러 분야를 다룸으로써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3. 교과서 연구 및 인식의 저변 확대

『교과서연구』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현장 교사, 교과서를 간행하는 출판사 경영인과 편집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또한 교과서 구입과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등을 안내하고, 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과서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Ⅲ. 교과서 연구에 더 큰 등불이 되기

『교과서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에서 교과서 연구에 처음으로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관련 분야에 두루 비추어 왔다. 이제 교과서 연구에 더 크고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장기적인 실행 계획 하에 교과서의 역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기적이고 긴급한 사회적 필요와 국가 수요에 부응하여 시의성 높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시의성 못지않게 중요한 장기 지속적인 연구 주제를 하나쯤은 선정하여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학술지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한국 교육계에 공헌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교과서 역사는 크게 한국과

동양, 그리고 서양으로 나누어 그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추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아직 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bible), 혹은 정전(canon)으로서의 교과서 관(觀)을 해체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 교과서는 무오류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 아니라,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 혹은 도구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교과서연구』가 수행해 온 여러 사업과 조사, 연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닌 경전으로서의 교과서 관을 완화하기 보다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 매체에서 하루 아침에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러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 선두에 『교과서연구』가 자리해 주길 바란다. 교과서와 관련된 현실과 현상을 뒤따라가며 기술하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의 변화를 주도하고 견인하는 선도자 역할을 기대한다.

셋째,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교육계를 격렬한 논쟁 속으로 몰아넣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교과서연구』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교과서 관련 논쟁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논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과서 관련 정론지인 『교과서연구』가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침묵은 때로 회피나 수수방관, 또는 암묵적 동의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학회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은 관련 집단의 ‘숙의(熟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적 ‘관철(貫徹)’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사 국정화가 필요한 필요하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공적인 숙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성찰한 바 있다(성열관, 2016).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교과서연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하여 특별 기획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그 전말을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IV.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뚝 서길

『교과서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독보적인 교과서 전문 잡지이다. 지난 40여 년간 연 100호 발행을 이어오면서 양적,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시의성 높은

특집 주제 설정과 심층적인 연구, 교과서 관련 논의의 지평 확장, 교과서 연구 및 인식의 저변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하다.

『교과서연구』는 향후에도 한국의 교과서 연구에 더 크고 밝은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 교과서의 역사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와 연구, 교과서를 경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습 도구의 하나로 바라보는 교과서 관의 전환에 앞장서는 일,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등을 통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연구』의 발전을 기원한다. 

참고 문헌

성열관(2017). 국가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제1차 국가 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자료집, 3-25.

필자 소개

지리 교육(교육과정과 교과서), 다문화 교육/세계 시민 교육, IB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하얀 비닐 속에서 나온 책



백종민

공릉중학교 수석교사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 지능, 스마트폰, 자율 주행차 등의 단어들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신기함을 넘어 익숙하게 들리는 시대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비교적 변화가 느린 학교까지 아이들 미래의 삶을 대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 내용으로 만나는 곳이며, 그 교육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방향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다른 책과 달리 인류가 축적한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후세가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몇 년간 엄선해서 만든 학습 자료로서 현재의 삶에서 학생의 미래 삶을 명확하게 담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과학 중 물리 교육이 전공했으며,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의 양과 속도는 교과서의 교육 내용으로 담아내기에는 그 변화 속도를 따를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변화가 느린 자연에 대한 지식을 담은 과학 교과서 속에는 이전에도 지금도 유용한 지식 위주로 채워져 있어 변화를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수업 종이 올리면 손엔 이전의 내용을 담은 것 같은 교과서가 함께 교실로 가고 있으니깐.

수석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밖에서는 계속 변화를 요구할까? 교육과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때늦게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과서에 관련된 수필 형식의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동안의 경력이 만든 전공과 관련된 교수 방법적 지식은 웬만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현장 교사, 학생 입장에서 쉽고 유익한 교과서 집필 경험 정도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교과서에 대한 일상적 감상 글을 요청받았으니 교과서 집필보다 더 큰 부담감과 고민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교과서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덕분에 나는 더욱 유익한 선물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받게 되었다. 하얀 비닐봉투에 담긴 책 한 권은 나의 교사 생활을 더욱 탄탄하게 지탱하는 큰 선물이었던 것이다. 바로 『교과서연구』라는 전문 잡지이다.

『교과서연구』가 처음 배달되던 날, 나는 내 글을 실은 기념으로 1회 배달로 가볍게 여겼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호감과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마침 내가 공부하는 대학원의 ‘교재 연구 개발’이라는 과목에서도 교과서에 대한 논문들을 무겁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서연구』 속에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학습 자료로서 교과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실제 활용되는 모습의 소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의 교과서 모습, 교과서와 관련된 논문이나 학술적 자료, 심지어 교과서 관련된 삶의 이야기까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전공 공부와 함께 교과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전문 서적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은 시작종 울림으로 시작하고 몇 번 교실을 들어가고 나오고, 수시로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과 평가를 고민하는 바쁜 일상의 연속이다. 이럴 때 퇴근하는 집 우편함에 놓인 하얀 비닐봉투를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함에 급히 비닐을 뜯는다. 그리고 책 내용을 훑기 시작하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사진으로 찍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준비했다. 일단 손에 쥐고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 나의 책장 한 칸에 마련한 『교과서연구』칸에 고이 차지하게 해 준다. 이렇게 『교과서연구』는 나의 교수·학습 자료, 각종 교사 연수 자료, 그리고 나의 대학원 연구 활동에도 새로운 정보와 동력을 제공하였다.

교과서연구

100

1. 수업에서 활용하다

『교과서연구』 책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표지의 ‘특별기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목차>를 보게 된다. 현장 교사로서 아마도 가장 반가운 경우는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교과서 제작은 보통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집필과 검정 통과 수정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바로 이어서 지도서 자료, 참고 도서 등의 교재들의 집필이 이어진다. 집필진 교사들과 출판사 편집진 등이 만나서 전체 모임, 영역별 모임 등의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체력과 지력, 정신력까지 요하는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거칠고 추상적인 문구를 때로는 폭넓게, 때로는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합의를 거치고 그 결과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면 현장 교사 입장에서 집필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집필 교사들은 교과서가 지니는 엄격성, 구속성을 벗어나 현장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남달리 항상 큰 관심이다. 따라서 『교과서연구』에서 실제 구현된 교육과정을 소개한 자료를 만날 때면, 특히 내 전공 과목일 경우는 더욱 반갑다. 수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내 수업에 직접 적용해 보거나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내 수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 수업을 자주 참관하거나 컨설팅하면서 배우는 나 역시도 소개되는 자료를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워크숍, 컨퍼런스 내용, 이에 대한 현장감 있는 자료나 연구 논문이 제시되어 있어 그 연계성에서 현장의 교수·학습 자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위주의 통합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에서 백워드 수업설계까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나 나눔이 부족한 현실이다. 어떤 학교는 선도적으로 앞서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기도 한데 당장 해보려고 할 때도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때 『교과서연구』에서 특별기획으로 제공되는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에 대한 자료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과정과 적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유익하고 활용도가 높았다. 특히, 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인 창의

적 체험 활동 관련 진로 교육, 환경 교육, 인구 교육, 인성 교육 등의 자료는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소개된 교수·학습 자료들 대부분은 여러 과목과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이와 달리 교과목의 특성이 강한 중·고등학교 자료는 사례 수가 소수이며, 소개된 자료도 그 과목의 내용이 깊이 있게 제시되어 많은 교사들보다는 해당 소수 과목에게만 유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활용으로 소개된 자료들의 현장 실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한 학습 주제에 대해서 교육과정 분석에서 핵심개념 설정, 교수·학습과 평가 과정이 전체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을 보여 주어야 독자의 이해가 쉽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연계된 깊이 있는 자료가 제시되기보다는 한 개인 교사 자신의 과목 전체 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주제에서 다양하게 적용했던 좋은 사례 중심으로 해당 차시별로 소개되어 ‘깊이 있는 학습’ 사례라기보다는 ‘폭넓은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교과서연구』가 계간지로 발행되다 보니 외부 기관에 의해 소개되는 학습 자료들보다는 중요한 기획물들이 시기적으로 소개가 늦기도 한다.

2. 연구자로서 만나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원에서 ‘교재 연구 개발’ 과목을 수강했는데 교과서 개발 방향,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그리고 자유발행제 등의 교과서 발행 제도까지 다루었다. 초·중·고 교과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는 일부 과목이 있는 시기여서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다. 여기서 국민성 형성을 위한 국정제와 다양성에 기반한 자유발행제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정부는 인정제, 자유발행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제작 과정, 교과서의 편집·디자인 규정 등 교과서의 규격과 질에 대한 법과 제도에 관해 배울 수 있었다. 『교과서연구』는 이러한 수업 내용을 충분히 보조해 주는 훌륭한 자료였다.

어떤 날은 매년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교과서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이 대학원 현장 수업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그곳에서는 싱가포르나 프랑스 등의 국외에서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개와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져 교과서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나는 이곳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발표자의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중요한 내용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바쁘게 기록하거나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긴장감 있게 보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배달된 흰 비닐 속 『교과서연구』에는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내용이 지상으로 중계되듯이 사진과 함께 사용한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어 더욱 놀랐던 기억도 있다. 다행히 잘 정리된 자료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최근에 나는 학교 공기질 통합 관리라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학교의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인터넷으로 환경 교육 관련 자료나 논문을 읽어보며 최근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악화된 점, 학교 시설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려해야 할 문제 등 대해 고민하던 중 『교과서연구』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작년 발행된 책에서 환경 교육에 관한 자료를 접하고 환경 교육의 방향이나 쟁점, 지역 연계 및 통합적 접근 방안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 내가 필요한 것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유용함을 최근까지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3. 세계의 교과서와 만나다

『교과서연구』에서 〈국제동향〉은 매년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국제적 교과서와 관련된 코너이다. 세계의 교과서 정책이나 교육과정의 변화, 때로는 국제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들이 제공되어 새로운 소식을 전해 준다.

최근에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우리나라 교육 혁신을 위해 IB 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한 글들이 실렸는데 IB를 연구하는 교육자와 실제 우리나라에서 IB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사의 글을 통해서 국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운영 모습,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을 실제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거나 각국의 교과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글들도 세계의 교과서 개발 방향이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가의 교과서 발행과 저작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 발행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중·고등학교 예·체능 교과 등의 비입시 과목을 대상으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서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업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교과서연구』의 <국제동향>에서는 각국의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으며 각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영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교과서 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는 교과서 발행 인정제, 독일과 이스라엘은 검정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교육과정이 대강화되어 있는 덴마크에서는 교사가 직접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유롭게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각국의 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는 각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국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좋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과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연구』 글의 세계적인 동향은 교과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합리적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었다.

4. 교과서의 미래를 그려 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가 몇 달간 휴업 중에 있다.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한꺼번에 전국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준비했다. 우리 학교는 내가 주도가 되어 온라인 수업을 사전에 대비했다. 미리 플랫폼이 결정되어 학생 계정과 교사 계정을 인증하고, 수업 참여 방법과 수업 촬영 및 수업 녹화 영상제작 등을 연수하고 학년별로 제작된 자료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단계까지 일정에 맞추어 차곡차곡 진행한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온라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수업 도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의 관심은 한 차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효과적인지 수업이 되는지 그 내용을 되돌아보는 여유도 생겼다. 코로나로 인하여 큰 그림이나 지향점에 대한 준비도 없이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인란 말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학생과 학생의 상호 작용,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 협력적 학습 활동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률적 출석 점검과 6~7교시까지 진행되는 일방적인 지식 숙달과 과제 해결 방식이 점점 자리 잡혀 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대적으로 학생의 학습 이해도와 학습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학부모의 반응, 학생의 학습 효율성에 대해 제대로 된 피드백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온라인 수업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여러 논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논문은 지금과 같은 일률적 온라인 수업보다는 일부 학생을 위한, 또는 소수 선택 과목을 위한 원격 학습에 대한 자료들이 많아 나의 답을 구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책장에 꽂혀있던 『교과서연구』 책에 적힌 ‘미래 지향적 교과서’란 글자가 들어오고 <특별기획>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기 조절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 학습의 흐름이나 필요한 학습 활동, 도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 내가 원하던 실제적인 답들이었다.

그러면 실제 교과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등교가 늦어지면서 연간 시업 시수가 감축되었다. 이는 이전처럼 서책형 교과서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진도를 따라서 한 차시 한 차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시수 부족으로 교과서 내용 전부를 가르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들은 단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 중에서 핵심 개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수업이니 교과서를 보면서 진도를 나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단원의 필수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 학습자료를 교과서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해야 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방법, 학생의 학습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했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교과서는 단지 교수·학습에 필요한 많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면 충분했고, 가르치기보다는 학생이 어떤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거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되었다. 수업 방식들도 글쓰기나 토론, 공동작업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상대적 활용이 낮았던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디지털교과서는 곳곳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링크되어 교사가 필요한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에서 필요한 수업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게다가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넘어서 시청각 자료, 영상뿐만 아니라 가상 박물관, 가상 미술관 등의 AR, VR의 가상 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갖추어진 미래형 교과서로 진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교과서에 대한 이해력과 안목을 넓혀 준 것도 『교과서연구』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안다.

또 다른 혜택도 있다. 내 책장 한 곳을 차지하는 계절을 닮은 색깔로 가지런히 꽂혀진 여러 권의 『교과서연구』 책이 주는 혜택이다. 온갖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바로 얻을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손으로 바로 펼치고 볼 수 있는 서책형 『교과서연구』가 주는 혜택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대한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이 강조되면서 교과서가 학습 안내 자료로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온라인수업을 경험하면서 ‘교과서로 가르치다’에서 ‘교과서를 이용하다’로 바뀌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능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반, 기술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로서 미래 지향적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도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교육과정 목표를 실제로 구현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과서의 모습, 교육과정을 전공한 연구자 관점에서 본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지향적 교과서의 모습 까지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히고 있다. 그 중심에 그동안 교과서 정책과 제도, 연구 논문, 현장 교육, 그리고 삶과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 준 『교과서연구』 전문 잡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자와 현장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연구지가 되길 바란다. 

필자 소개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 지도서를 집필하였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과학과 교육과정, PCK 연구,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에 관심이 많다.

현장의 원격 교육 경험이 시사하는 미래 교과서 발전 방향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

1. 논의의 시작

미래 교육 혁신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발전 방향을 종합해 보면, 교육과정의 대강화,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의 변화, 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활동 중심 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이다. 그러나 실제 교실 환경에서는 교과 중심, 교과의 주요 자료로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수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이 변해야 교과서도 변할 것이라든가 수동적 관점이 아니라, 교과서의 기능과 형태, 활용의 주체, 활용 환경 등을 고려한 교과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실제 코로나 19 대응에 따라 두 번의 개학 연기와 원격 교육이 실시되었던 상황을 확인해 보면, 학년 초 교과서를 미처 배부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는 상황은 둘째치고라도, 그동안 교과서를 매개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수업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초기 고민이 많았다. 원격 교육의 방식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형 수업으로 분류되어 현장에 제시되었을 때, 대부분의 수업이 기존 EBS 콘텐츠나 e학습터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원격 교육 활용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현장은 다르게 움직였다. EBS 콘텐츠, e학습터 콘텐츠는 전체 수업에 활용한 콘텐츠의 32%를 차지했으며,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33%, 오히려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이 10%에 달했다. 그 외 유튜브 등 민간 제공 자료가 25%였다. 물론 대부분의 기존 콘텐츠가 교육과정에 충실히 만들어졌겠지만, 선생님들은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온라인에 걸맞는 콘텐츠 형식으로 만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제를 제시하거나 수행 결과에 대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는 상호 작용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하에 향후 원격 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으로 교과별/차시별 다양한 콘텐츠 및 학습 자료의 제공이 응답자의 65.4%, 학습 진도 관리 등이 용이한 시스템 개선이 59.5%로 의견을 주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학습 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40%, 평가 제도 개선 22%,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였다(교육부 원격 교육 활용 조사, 224,894명 응답, 4. 27.~29. 온라인 설문조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수업의 주체는 교육과정 운영을 주도하는 현장이며,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는 교사에 의해 재구성되고 활용될 때 진정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과정 구성이 모든 것을 촘촘히 규정하고, 이를 교과서를 통해 내용의 양과 순서, 때로는 전달 방식까지 표현하여 제공되었던 틀의 한계가 이번 예기치 않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일까? 향후 원격 교육을 면대면 수업에서도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현장의 의견은 보통 이상인 76%에 이르렀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교육과정을 다시 확인해 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소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이라 분석해 볼 수 있다. 논의의 시작이자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현장에게 이양하는 것, 교육과정 발현의 핵심 교재로서 교과서의 형식조차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모든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것, 이를 위해 어떻게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한 형태로서 디지털의 장점을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에 대한 방안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교과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확인하고, 그나마 서책형 교과서를 발전시킨 형태라지만 현재의 디지털교과서의 한계를 파악해 보고, 향후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교과서 발전 방안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제도 개선의 시작 : 해외 교과서 제도 분석

교과서 제도의 근간이 되는 발행 제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채택 현황과 국가별 교과서 관련 법규와 운영 제도를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 해외 교과서 발행 현황

발행제	해당 나라
국정제	러시아, 몽골, 북한,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검정제	일본, 중국, 독일, 칠레, 베네수엘라, 베트남, 브라질, 이스라엘, 케냐
인정제	싱가포르
자유 발행제	프랑스,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혼용	미국(인정, 자유 발행 주별로 상이) 멕시코(초등 국정, 중학교 검인정, 고등학교 자유 발행)

출처: 박지현, 2019: 504

표 2 — 국가별 교과서 정책 관련 법규와 운영 제도 비교

국가	법규 존재	주요 법규 내용	교과서 승인 제도	교과서 제도의 특징
미국 (텍사스주)	유	-교과용 자료에 관한 교육법 -교과서 검정이나 보급에 관한 시행법	인정 (채택)제	-출판사 출간/주 정부 채택·목록화 -채택을 위한 심사 -지역 교육청의 교과서 선정 -주 정부의 교과서 구입비용 지원(무상)
프랑스	무		자유 발행제	-제작, 선택, 사용의 자유 -학교별 교사 협의회의 선택 -구입 비용의 국가 또는 지역 정부의 지원 -교육과정에 의해 출판사에서 교과서 집필 및 출판(출판사 자유 경쟁)
독일	유	-각 주의 교과서 승인 제도 -학교 관리법 -교과서 승인 절차, 기준	검정제	-주마다 승인 절차 또는 기관이 다름 : 주 정부/ 기관 또는 연구소/승인 제도 없음 -학교(교사/학부모)의 교과서 선정 -구입 비용 일부 정부 지원 -교과서 구입의 규정이 없음 -출판사의 공급 및 컨설팅
캐나다 (온타리오/ 앨버타주)	유	-학교법/교육법 -교과서 선정, 인가, 공급, 열람, 비용 지원 등 -지역 교육청, 교장 및 교사의 임무와 역할	검정/ 인정제	-주 정부 주도의 검정 -교과서 승인을 위한 집필 조건과 검정 기준, 절차 준수 -승인 교과서 목록 제공 -학교(교사)의 교과서 선정, 교육청(또는 학교)의 비용 지원

호주	무		자유 발행제	-공급, 개발, 배분, 규제에 대한 정책 없음 -수요자(학교 등) 개별 구매 -출판 산업의 자유 경쟁 구도
일본	유	-학교 교육법(정부 검정을 거친 교과용 도서 사용) -무상 보급 제도 (의무 교육제 학교)	검정제	-정부의 심사 -정부주도 심의기관 설치 -지방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선정 -정부의 가격 통제, 불공정 거래 규제 -무상 보급
중국	유	-의무교육법(국가 수준 교과서 검정 심사 제도 내용 포함)	국정(강함)/ 검정제	-3단계 심사 검정 과정(교과서 개발 신청, 심사 및 승인, 지역 단위 교과서 선정) -정부 주도 심의 기관 설치
네덜란드	무		자유발행제	-교과서 제작 분배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출판사 지위 인정(정책 운영에 참여) -학교의 교과서 선정(교사 주도, 선정 시 활용할 질적 평가 준거를 정부에서 권고)

출처: 김덕근, 2012: 269

나라마다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발행 제도는 달랐으며, 이러한 제도 기저에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교과서관을 보이고 있었다(김덕근, 2012). 첫 번째로, 일본과 중국에서는 교과서를 교육의 근간으로 보았기에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법령상의 규정에 준수하여 교과서를 발행하고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가 갖는 위치나 위상은 매우 중요하며, 질 관리 또한 중요한 의제로 기능한다.

두 번째로,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교과서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았다. 미국의 경우, 주 교재(교과서)와 부교재(교육용 자료)를 활용하는데 교과서는 주 단위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출판사가 2~3개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며 부 교재에서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는 교사를 위한 도구로 교사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캐나다에서는 교과서는 인쇄본, 전자 형태, 인쇄되지 않은 학습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국, 일본과 달리 교과서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있다.

세 번째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교육 정책에 따라 교과서의 의미가 달라진다. 독일에서는 교과서가 학습자들에게 맞추어진 수업 자료가 되는 출판물이며, 검정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지만 활용에 있어서 교과서는 여러 학습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사용 여부도 교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교육 정책상 학업 성취 평가는 교과

서 내용이 아닌, 활동의 수행 과정, 태도, 수행의 내용과 같은 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에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다만 최종 졸업 시험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기에 교과서에서 매우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또한 각 나라별로 교과서 발행 제도가 다른 배경에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김덕근, 2012). 첫 번째로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정부의 정치·행정적 목적하에 교과서 정책의 방향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남부 지역에는 교과서를 관리하는 단체인 미국교과서관리자연합이 있으며,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매우 거대한 출판사이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를 통제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전학하게 될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교과서를 과거에는 통일시켰다. 그러나 이후 주 정부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연방 정부에서 국가 공통의 입장과 각 주의 자율성을 적절히 혼합하여 검정제로 변화시켰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료주의적 행정주의가 교과서 검정제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었으며, 교과서 발행에 대한 매뉴얼이 매우 세세하고 까다롭다.

두 번째로 캐나다와 중국은 사회의 변화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서 정책을 형성하였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과거 특정 교사가 수업을 잘못 진행한 데서 생긴 문제로 인해 주 정부가 교과서 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점검하게 되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에도 주 정부마다 교과서 검정의 기준은 상이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철저히 국가 주도의 교과서 제작과 보급을 위해 검정제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율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나 호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시장의 압력과 자유로운 교수 풍토를 반영하는 분위기로 교과서 정책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 구성과 제작이 18세기 말에 민간에게 넘어갔으며, 출판사에서는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해, 그러면서도 학교와 교사로부터 선택되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교과서가 혁신적이거나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무난하게 팔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방식 아래 자유 발행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 출판 산업의 발달과 자유로운 교수 자료 사용에 대한 풍토가 마련되었으며, 출판사 간 우수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경쟁과 함께 교사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교과서를 선택하면 되는 자유 발행제

가 유지되고 있다.

이상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온정덕, 2019). 덴마크의 경우,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는 교과서 발행과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출판사와 시장이 교과서를 전담한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시중의 교과서를 직접 선택하여 사용한다. 한편, 교과서의 저자는 대부분 현장 교사이거나 교원 양성 기관의 교수들이며, 교사들이 교과서를 출간하고 싶다면 출판사와 직접 연락하여 출판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와 교수가 팀을 꾸려 출판사에 제안서와 샘플 단원을 보내 교과서를 출판하기도 한다. 이때 출판사에서는 덴마크 교육과정 문서와 해설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근거로 적절성과 정확성을 검토하여 교과서 작업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경우,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1~9학년의 경우, 대형 출판사에서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만드는 추세이며,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각 출판사마다 특화된 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추세이다. 또한 출판사의 종류도 일반 기업도 있고,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협의회, 교육전문단체로 이루어진 재단으로 다양하며, 비영리 기관의 경우 교과서 가격 또한 높게 책정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서 한 권만으로 수업하기보다는 디지털교과서와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교과서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들 중 하나로 인식된다. 또한 학교에서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였다고 해서 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교과서가 가진 위상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자유 발행제에 따른 교과서 질 관리의 경우, 교사들은 교과서와 관련한 사용에 관해 교육부의 컨설턴트 혹은 교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구한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리뷰는 교사협의회, 뉴스 레터와 학회지를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아울러 교과서나 교수·학습 자료 사용에 대한 감독과 지원은 학교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이며, 교육부는 지원자이자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음으로 홍콩의 경우, 홍콩 교육국(Education Bureau, 2020a; 2020b)에서는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 지침, 인쇄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판사에서 교과서 발행안을 제출한다. 그런 점에서 홍콩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검정제라 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각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홍콩의 최신 교육과정 방향과 일치되도록 내용을 작성한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만족하는 교과서라면 홍콩 정부 교육

국에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치에 합격한 도서는 추천 도서 목록(Recommended Textbook List)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한편, 심사에서 두 번이나 떨어진 도서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없다. 홍콩 교육국에서는 이러한 추천 도서 목록을 웹 사이트에 기재하며, 각 학교는 학교의 사정에 맞게 추천 도서들 중 희망하는 도서를 자신의 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11월부터 홍콩 정부에서는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판된 교과서는 5년간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주요 국가의 교과서 발행 제도와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주도의 교과서 발행 제도를 민간과 시장에 권한을 이양하고, 최근 고등학교 일부 선택 교과에 한해 자유 발행제를 시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수준의 교과서 발행과 심의 기준에 의해 교과서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과서를 바라보는 인식, 이른바 교과서관의 철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느 제도가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교과서가 수업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교과서를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과서는 당연히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자원의 하나라는 인식 전환과 공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양성이라는 차원은 두 가지이다. 교사들이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교과서의 개념의 범위 때문이다. 교과서 이외의 다른 교육용 자료를 배제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차원의 변화와 함께 규정의 강제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서의 형태가 서책형이든, 디지털 자원이든, 활동지이든, 수업에 활용되는 지원 자료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면 선택되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과서가 가지는 위상은 가져가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오히려 발행하는 주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도 교과서를 선정하는 주체는 학교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교과서가 선정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역할을 사전 심의에 의한 발행과 표준화된 질 관리 기준 마련이 아니라 사후 교과서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교사협의회, 연구회 등을 통해 확보하고 공유되도록 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교과서 선정 주체로서 학교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교과서의 발행 주체가 현장 교사가 되도록 한다. 기존의 교과서를 출판의 개념으로 본다면, 출판사가 중심이 되어 교사를 집필진으로 참여시키는 형식이지만, 활용의 차원으로 본다면, 국가나 국가가 인정한 민간, 출판사가 최소한의 핵심 주제 자료, 콘텐츠를 제시하면 현장 교사 협의체, 연구회가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는 교육과정 대강화로 전환되고, 교육과정에는 필수 핵심 요소(minimum essentials)나 핵심 성취 기준(core achievement standards)만 정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원격 교육 상황에서, e학습터에는 각 단위별 핵심 개념에 대한 주제 단위 콘텐츠가 단위별로 제시되어 있었다. 물론 e학습터는 그동안 교실 수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방과 후 자율 학습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서비스였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던 핵심 개념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핵심 개념만 담아낸 콘텐츠를 국가가 개발하여 제시한 형태였다. 이러한 형태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추가 자료를 연계하고, 보완이 필요한 콘텐츠는 직접 개발하여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모든 자료가 곧 교과서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면, 국가의 교육과정 방향에 따라 민간과 출판사가 최소한의 핵심 개념 콘텐츠를 각기 전문성있게 개발해 내고, 이를 현장이 선택하고, 추가적인 자료와 활동은 시의성 있게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이 자유발행제를 넘어 현장의 자율적 참여와 활용에 따라 교사들만의 ‘독특한 교과서’, ‘자신의 수업 방식이 녹아든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비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교과서의 한계 극복

서책형 교과서의 발전적 모습으로 디지털교과서가 일부 교과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교과서 역시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가 가진 제도, 표현 방식, 활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좋은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종국, 흥미화, 2016).

바람직한 교과서는 첫째, 학습 내용과 학습량이 줄어든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량이나 학습 부담은 줄어들지 못한 채 학습의

양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난이도가 적정히 조정되었으면서 학습 내용과 양이 줄어든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생활 경험에 기반한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잘 연계되면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개념과 원리로 제시될 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의 교과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괴리된 내용도 많은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좀 더 학습 동기를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고양할 수 있게 하는 경험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추어 핵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체험과 활동 중심의 학습자 참여형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체험과 활동은 교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꾸어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주제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협력 활동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협력이며, 교과서는 이제 개인이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구성과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사고를 자극하고 질문을 유발하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정답을 찾거나 하나의 단일사례로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특정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교과서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스마트러닝 환경을 고려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제작이 필요하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한 것이라면, 여기서의 디지털교과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교과서 발전 방향이 반영된 플랫폼이다.

이승표(2016)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미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교사가 없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교과서는 작은 글씨고 많은 양이 담겨져 있어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과서의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계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는 개념과 지식을 나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토론과 협

력할 수 있는 교과서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이 반영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매체가 활용된 교과서가 제작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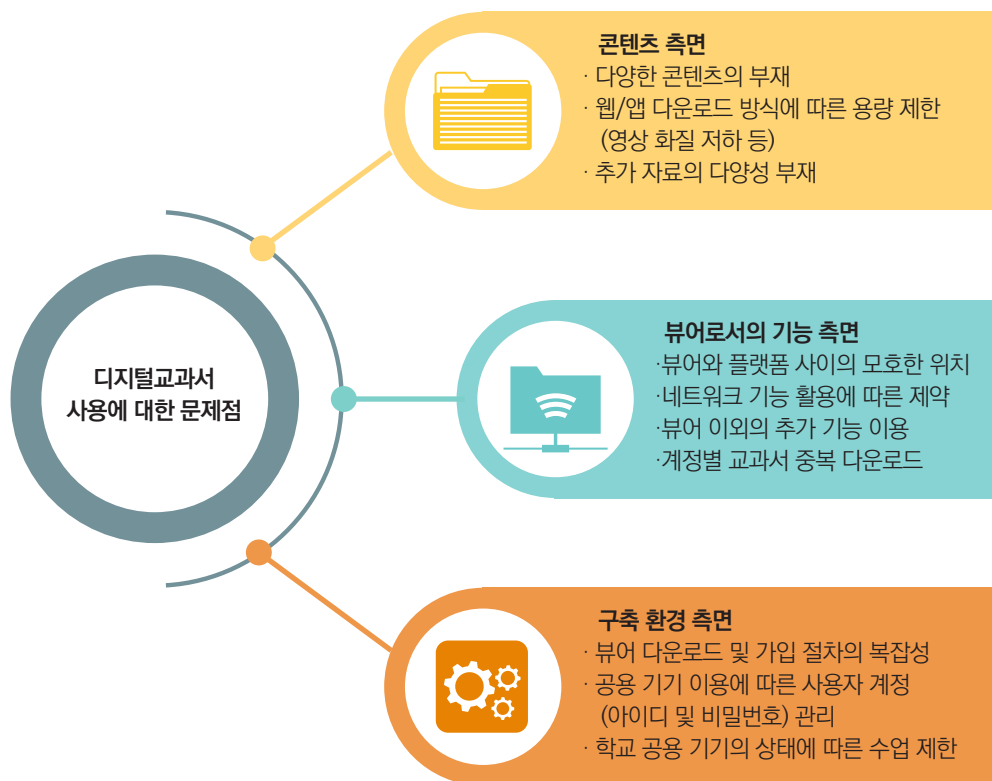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사실 교과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분히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평가, 관리의 문제, 크게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 조율 등 제도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제안들이다. 그러나 만일 교과서관을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든 지원 자료와 활동까지를 포괄한 개념으로 확장한다면, 즉, 교재, 내용으로서의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전달, 상호 작용 활동, 평가, 학습 관리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한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현재 디지털교과서의 몇 가지 개선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과서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디지털교과서의 개념 자체로는 앞서 말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플랫폼의 기능을 담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디지털교과서 개념은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 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외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교과용 도서’이다. 특히 자료라는 개념에 더하여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 외부 자료와의 연계 가능 등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단지 교과용 도서라는 말로 정리됨으로써 현재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학생용 자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교과서 콘텐츠나 구동하는 뷰어, 구축 환경 측면에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구덕회, 2018). 첫 번째로 콘텐츠 측면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되어 공급되며,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사용되는 점에서 교과서로서의 위치가 모호하며,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내용이 다를 바가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웹과 앱을 통한 다운로드 용량을 교과서마다 2기가바이트로 제한하는 바람에 교과서 내 콘텐츠들의 품질이 대폭 저하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양이 부실한 점에서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뷰어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뷰어가 콘텐츠를 보기 위한 뷰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정이 존재해야 하며, 공동으로 태블릿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계정마다 교과서를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구축 환경 측면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사용법도 익혀야 하며, 디지털교과서를 다운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런 절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홍섭, 조현식, 2014; 구덕희, 2018에서 재인용). 네 번째로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교사가 기기 사용 전, 후로 점검해야 하며, 기기가 고장 나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성지현 외(2017: 846-850)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선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의식 수업의 유용한 도구였던 서책



형 교과서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하며 객관식, 주관식 문제들로 구성된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서책형 교과서에서는 할 수 없던 활동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여 그 활동을 조작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별, 지역별 학습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에 디지털교과서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처럼 한정된 자료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선별하고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되는 보충 설명 자료의 경우에도 가짓수를 늘려 학습자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설명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차를 고려한 적응적 학습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정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디지털교과서는 즉각적으로 정답이 나타나기에 학생들은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대충 답을 적은 후 바로 정답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에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동시에 학습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특정 기능에 대한 아이콘이 너무 작거나 불편한 위치에 있어 학습을 방해한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태블릿 pc일 경우에는 타자 입력이 어려운 문제 등도 지적되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부 교과와 일부 학교에서 활용되었지만, 디지털교과서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콘텐츠나 학습 지원 기능, 현장 활용 측면에서 많은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획기적 발전 방안 모색없이 현장 확장성에도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번 원격 교육 상황에서 디지털교과서는 다른 학습 콘텐츠와 함께 주요 원격 수업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부는 과학, 사회, 영어 등의 디지털교과서 이외에도 그동안 각 출판사별로 서비스되던 초, 중, 고 검정, 인정 교과서를 중앙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pdf 파일로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초기 저작권 문제 등으로 웹을 통해서만 서비스되던 제약도 현장의 요구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에서 교과서의 현장 지원 기능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제 디지털교과서나 교과서 pdf 파일이 원격 수업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일부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사회, 과학, 영어 등의 디지털교과서 자체를 화면에 띄워 놓고, 그 자체로서 내용을 전달하는 데 활용하였다. 디지털교과서에는 이미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학습 내용 전달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생들도 웹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교과서 pdf 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사전 수업 설계를 위해 활용하거나, 별도의 수업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 기본 자료로 활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업 자료 개발 시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원격 교육이 다시 실시되는 상황이 오거나, 일반 수업의 블렌디드 학습 지원, 교학점제를 위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디지털교과서의 교과 확대나 최소한 교과서 파일의 온라인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 더 나아가간다면 교과서 내의 지문이나 그림, 사진 자료를 개별 단위로 활용하고 추가 자료를 손쉽게 연계할 수 있다면 교사들의 수업 자료 개발 노력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교사들은 이번 원격 수업을 운영하면서 출석 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수업 준비 시간 부담을 어려웠던 점으로 응답하였다(응답자의 42%). 또한 수업 저작권이나 교사 초상권에 대한 침해 우려 또한 어려웠던 점으로 응답(41%)한 것으로 미루어, 교과서 자체가 교사의 수업 설계나 방법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향후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논의의 결론: 교과서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

교과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제도 분석을 통한 결론은 먼저, 교육과정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 자료라는 관점으로 교과서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그나마 자유 발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교육청이 심의 기준에 의해 교과서 발행을 허가하던 체제에서 최소한의 심사 기준에 근거하는 신고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교가 바람직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고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교육부)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환이 전통적 인식으로는 내용의 편향성이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번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자료 개발 등의 역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면,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람직한 교과서로의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본다면, 정책적 의지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교과서가 국가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대강화라는 방향 전환도 필요하고, 적어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과 요소, 성취 기준에 대한 제시는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를 교과별로 규정하기보다는 각 개념 간의 선후, 연계, 참조 관계 등으로 조직화하고 계열화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학습개념 간의 조직 체계는 이른바 ‘학습 자원 지도(Learning Map)’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학습자원지도란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 개념과 요소 간의 상호관련성과 위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체계도를 말한다(김진숙 외, 2017). 학습 자원 지도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나 교사가 인지해야 할 주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과정 대강화로 정책 방향이 바뀐다면, 향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수정, 보완할 필요도 없어진다. 학습 자원 지도를 개발하는 일은 또한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인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의 내용 체계가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관련 주제가 교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수준과 주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그림 1]은 해시계와 연계된 관련 교과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표현한 학습 자원 지도의 개념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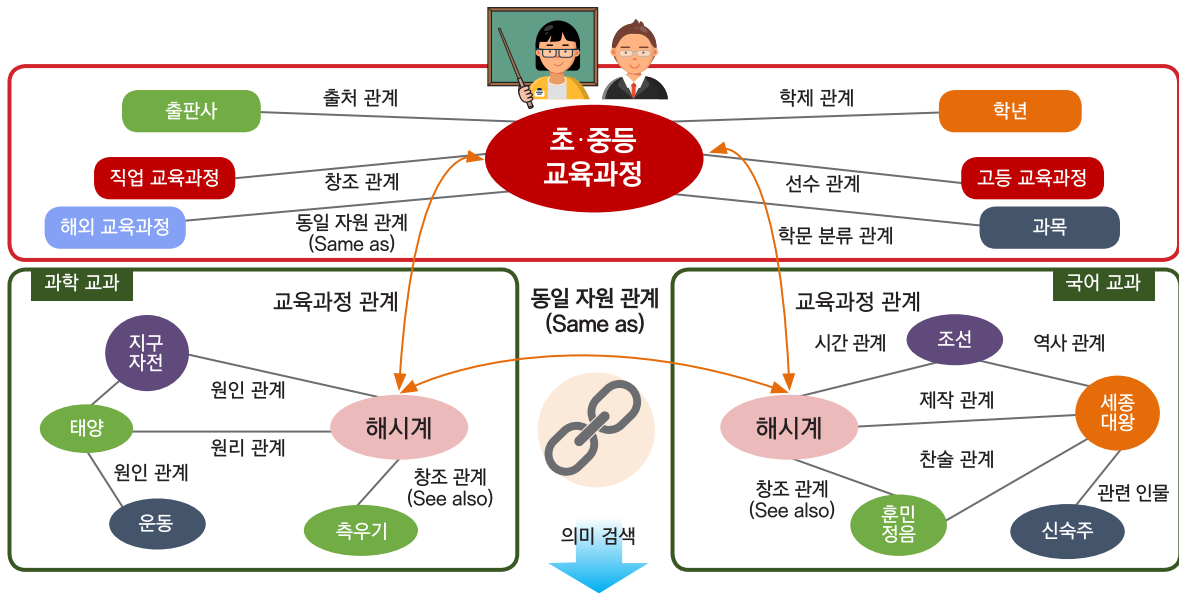


그림 1 — ‘해시계’와 연관된 관련 교과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냄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면, 각 주제와 연결된 학습 콘텐츠가 연결되는 체제를 구축한다. 교과서 제도가 자유 발행제로 전환된다면, 이는 민간이나 출판사가 질을 보장하는 학습 콘텐츠와 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활용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여 연계할 수 있는데, 각 콘텐츠나 자료의 접근은 수요자에 따라 완전 공유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 자원 지도와 콘텐츠가 연계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는 배워야 할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초등 4학년 1학기 각도의 개념과 관련한 하위 요소 간의 관련성과 함께 콘텐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의 관리 체제는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데, 학습 콘텐츠의 체계적 수집뿐 아니라 콘텐츠를 기록, 보존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품질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활용 관점에서는 교사가 직접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스스로 교과서를 저작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기반이 된다. 교사가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는 개념은 교과서의 핵심 내용과 성취 기준에 따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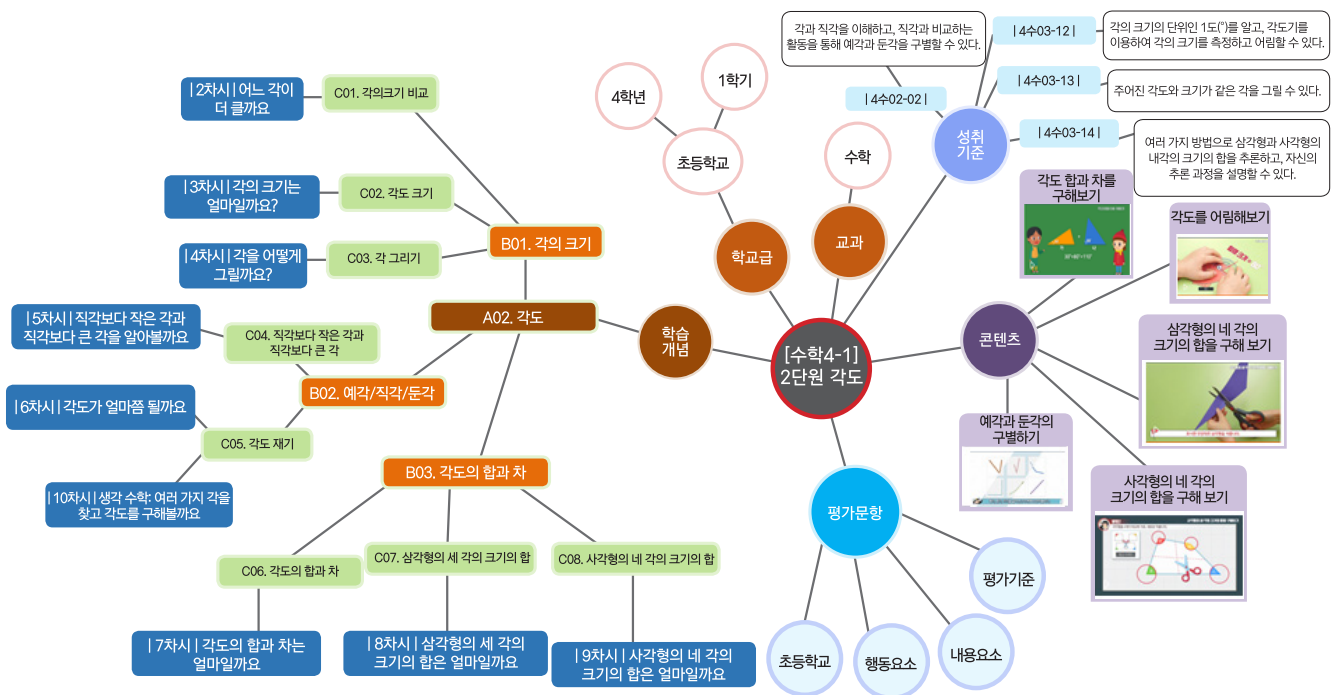



그림 2 — 학습 자원 지도와 콘텐츠 연계: 콘텐츠 아카이브 체제

다는 것이며,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단위에서 운영된다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학습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교과서의 발전은 미래 교육 방향, 그중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논의될 때, 교과서 역시 현장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 발행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교과서 선택 허용을 넘어선 현장 중심의 교과서 재구성이 가능한 저작 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계 과제로서는 학습자원지도의 개발과 각 핵심 주제별 콘텐츠를 연계시켜 관리하는 콘텐츠 아카이브 체제 구축이다. 이는 단기간에 끝내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작동되는 형태는 현재의 디지털 교과서 개념을 확장하여 기본 핵심 주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습 자료 연계, 학습 평가 및 관리, 상호작용 지원 등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체제

에서 학교,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자유롭게 만들면서, 상호 작용이 수반된 학습 활동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통해 학습자의 배움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현실 가능성은 결국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구하게 될 학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혁신적 방안일수록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많을 것이며,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도 첨예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원격 교육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학교 현장은 혁신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짧지만 강렬한 경험을 통해 교육 혁신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혁신이 현장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 고 볼 때, 학계나 연구자들은 이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9.12.3.). 초·중등교육법.
- 교육부(2020.1.7.).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
- 구덕희(2018). 디지털교과서 활용 일반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29(2), 81-91.
- 김대현(2015). 한국의 수업과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 교육혁신연구, 25(3), 21-44.
- 김덕근(2012).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1), 257-283.
- 김진숙 외(2017). 4차 산업 혁명 대응 미래 교육 빅픽처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문종국, 홍미화(2016). 미래 사회의 변화와 초등학교 교과서의 방향. 교과서연구, 2016.6 제84호, 25-38.
- 박지현(2019). 고등학교에서의 교과서 자유 발행제 적용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497-515.
- 성지현, 조영환, 조규태, 허선영, 양선환(2017).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교과서의 역할 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4), 831-859.
- 온정덕(2019). 덴마크의 교과서 개발 및 활용: 교과용 도서 발행 체제의 다양화에 따른 질 관리 방안 탐색. 교육논총, 39(4), 41-59.
- 이승표(2016). 미래의 바람직한 중등학교 교과서. 교과서연구, 2016.6 제 84호, 39-52.
- 홍후조, 백혜조, 임혜진(2013). 학습자 중심의 '참고서가 필요 없는', '확장된' 교과서의 의미와 구현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255-283.
- Education Bureau(2020a). Guidelines on Submission of Printed Textbooks for Review (Revised in February 2020). [https://www.edb.gov.hk/attachment/tc/curriculum-development/resource-support/textbook-info/Guidelines%20on%20Submission%20of%20Printed%20TB%20for%20Review%20\(Feb%202020\)_e.pdf](https://www.edb.gov.hk/attachment/tc/curriculum-development/resource-support/textbook-info/Guidelines%20on%20Submission%20of%20Printed%20TB%20for%20Review%20(Feb%202020)_e.pdf)에서 2020.5.3. 인출.
- Education Bureau(2020b). Textbook Information. <https://www.edb.gov.hk/en/curriculum-development/resource-support/textbook-info/index.html>에서 2020.5.3. 인출.

필자 소개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원격 교육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된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을 총괄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정책자문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



본 논문은 2020년 2월 『디지털융복합연구』에 게재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박상훈

세명대학교 교수

I. 서론

초연결, 자동화 등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 정보 사회의 등장은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라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네트워크화된 공간에서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훈과 김상돈, 2009). 디지털 시민성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매체 이용, 정보탐색 및 이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를 통한 참여와 소통, 메시지 및 콘텐츠의 생산과 분배,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조하고 생산하며 역동적으로 소통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능력까지를 포괄한다(김양은, 2010). 디지털 시민성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하여 디지털 윤리, 디지털 법률, 디지털 안전, 디지털 건강과 복지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 시민성이 기존의 시민성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과 사회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데 ICT 역량이 핵심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한국정보

화진흥원, 2016).

디지털 시민성은 해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2016)는 디지털 시민성의 역량을 respect, educate, protect 3개의 영역에 디지털 에티켓(digital etiquette), 디지털 접근(digital access), 디지털 법률(digital law), 디지털 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거래(digital commerce), 디지털 권리와 책임(digital rights & responsibility),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 디지털 건강과 복지(digital health & welfare)의 9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2016년에 발표한 새로운 교육과정에 멀티 리터러시(multi literacy), 코딩 교육, ICT 활용 교육을 미디어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였다(박경미 외, 2018). 캐나다의 경우는 디지털 시민성을 네트워크화된 세상에서의 인성교육으로 인식하고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이해, ICT 이용자로서의 책임과 윤리, 위험 관리에 대한 인지, 순기능 촉진을 위한 기술 활용, 학교 밖 세계와의 연결 등에 대한 교육으로 강조하고 있다(김봉섭 외, 2017). 영국의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에서는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소통과 협력, 온라인 평판 관리, ICT 리터러시, 학습기술, 디지털 장학금, 정보 리터러시 등 7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JISC&Helen beetham, 2016).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정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의 특징을 지닌 요즘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ISTE 2016; 김은미와 양소은, 2013).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생활의 편리함을 비롯하여 사회에 상당한 기회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범죄, 악성 댓글 등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일같이 접촉하며 성장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사용과 역기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 및 핵심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둘째, 학교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 모델을 구안하며, 끝으로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시민성의 이해

1.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

디지털 시민성은 ICT를 활용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성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공적인 이슈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매너, 공공 의식 등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정의할 수 있다. 유네스코(2016)는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과의 소통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능력, 온라인 및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박경미 외, 2018).

Choi(2015)는 디지털 시민성을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온라인 상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을 강조한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 둘째, 기초적인 인터넷 접속 및 활용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를 통한 글쓰기 능력까지를 포함한 미디어 및 정보 문해력(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셋째,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참여를 강조한 온라인 참여(Participation). 넷째, 공동체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저항(Critical resistance)을 디지털 시민성 정의에 포함하였다. 김봉섭 외(2017)는 미래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용성을 갖고 실천하는 능력,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학자 및 기관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정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

연구자	정의
Ribble & Bailey(2004)	디지털 시민성은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된 행동 규범
Jones & Mitchell(2015)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시민적 실천과 참여
JISC & Helen beetham(2016)	사람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삶과 학습 그리고 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Common on sense Media(2009)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전화, 기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콘텐츠와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

2.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

Jenkins(2009)는 10대 청소년들의 참여 문화를 강조하면서 참여 문화의 특성을 연대, 표현, 협동적 문제 해결, 정보의 순환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 요소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 Jenkins의 디지털 시민성 요소

요소	내용
적용(Play)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 자신의 주변에 실험하거나 적용해 보는 능력
환경 적응(Performance)	즉흥적인 대응과 발견을 목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채택하는 능력
상황 인식(Simulation)	역동적인 실제 상황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능력
적정화(Appropriation)	콘텐츠를 의미 있게 추출하고 변형하는 능력
다중 작업(Multitasking)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할 때 초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분산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능력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지식을 수집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판단(Judgment)	다양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
미디어 간의 항해 (Transmedia Navigation)	정보의 다중적 표상과 이야기의 흐름을 인지하는 능력
연결(Networking)	정보를 검색, 융합, 배포하는 능력
협상(Negotiation)	다양한 공동체와의 교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대안적 규범을 파악하고 따르는 능력

미국의 ISTE(2016)는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 목적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목적에는 디지털 에티켓(Digital Etiquette), 디지털 접근(Digital Access), 디지털 법률(Digital Law)을 포함하였고, 나 자신을 위한 교육 및 소통의 목적으로는 디지털 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거래(Digital Commerce)를 포함하였으며,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목적에는 디지털 권리와 책임(Digital Rights & Responsibility),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 디지털 건강과 복지(Digital Health & Welfare)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ISTE의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의 특징은 디지털 사회가 초래할 수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법률, 디지털 권리와 책임, 디지털 안전, 디지털 건강과 복지 같은 요소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편리함이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배려와 소통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안전,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 ISTE의 디지털 시민성 요소

목적	요소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디지털 에티켓(digital etiquette)
	디지털 접근(digital access)
	디지털 법률(digital law)
나 자신을 위한 교육과 타인과의 소통	디지털 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거래(digital commerce)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보호	디지털 권리와 책임(digital rights & responsibility)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
	디지털 건강과 복지(digital health & welfare)

영국의 JISC는 지능 정보 사회에 요구되는 디지털 시민성의 요소를 정보, 미디어, ICT에 대한 리터러시, 소통과 협력, 경력 및 평판 관리, 학습 기술, 디지털 장학금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JISC의 디지털 시민성 요소는 미디어, 정보, ICT로 세분화하여 리터러시를 강조하였다는 점과 디지털 경력 및 평판 관리, 디지털 장학금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박경미 외, 2018).

표 4 — JISC의 디지털 시민성 요소

요소	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정보 리터러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관리 및 공유하는 능력
ICT 리터러시	디지털 장비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
소통과 협력	학습과 연구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능력
경력 및 평판 관리	온라인에서의 경력 및 평판을 관리하는 능력
학습 기술	테크놀로지 기반의 환경에서 형식적,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디지털 장학금*	디지털 체제에서 새로운 학문과 전문적인 연구에 참여하는 능력

* 디지털 장학금은 디지털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한 자료 수집, 조사 방법, 연구, 출판, 저작권 보호 등의 활동으로 학습 및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출하는 능력,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적으로 필요함.

3. 초·중등 학생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요소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와 요소를 토대로 한국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의 요소와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 교사(초등 3명,

중등 2명), 교육 전문가(2명), 정부 기관(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8년 9월 ~ 2019년 1월까지 2차례의 전문가 협의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심도 있는 토의·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고, 학교 현장의 적용을 돕기 위한 역량 모델을 도출하였다. 다섯 가지 요소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의사소통’을 핵심 요소로 하여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 예방을 위한 ‘디지털 윤리’와 ‘디지털 책임감’, 디지털 사회의 순기능 활용을 위한 ‘디지털 창의성 및 협력’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각 요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 디지털 시민성의 다섯 가지 요소

다섯 가지 요소	내용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적인 인터넷 접근 및 활용, 다양한 정보 검색과 미디어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온라인에서 채팅, 문자, 댓글 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디지털 윤리	14세 미만 부모 동의 및 개인 정보 보호하기
디지털 책임감	디지털 기기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사용
디지털 창의성과 협력	연결과 협력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및 교류 협력

상기 다섯 가지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기술(skill), 배려(consideration), 적용(application) 세 개의 개념으로 묶어서 ‘Triangle competency model’을 구안하였다. 기술은 지능 정보 사회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보, 미디어, ICT를 이해하고, 접근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배려는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키고, 개인 정보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적용은 협력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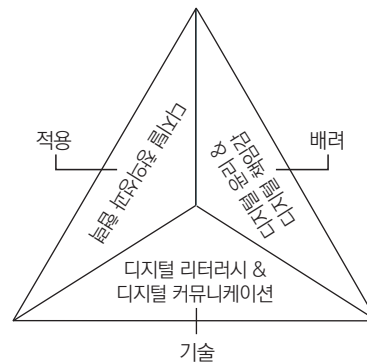


그림 1 — Triangle competency model

III. 디지털교과서의 이해

1. 디지털교과서의 특징

2007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의 사회, 과학, 영어 교과목, 중학교 1~2학년의 사회, 과학, 영어 교과목 고등학교 영어, 영어 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목에서 활용하고 있다(에듀넷 제공).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 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에듀넷·티-클리어, 위두랑 커뮤니티 등 외부 자료와의 연계 활동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활용 교재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실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겪는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에듀넷·티-클리어 회원가입(만 14세 미만 학부모 동의) 후 교과서 내려 받기로부터 시작되는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기르고 실천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다.

2.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디지털교과서에 내장된 기능으로 교과서에 필기, 메모, 책갈피 페이지 넘기기 등 기존 교과서의 기능에 추가하여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 3D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는 에듀넷·티-클리어, 위두랑 등을 활용한 상호작용 및 연계 기능으로 외부 전문가 및 외부 기관과의 상호 교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자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정보 및 미디어 제공 채널(구글,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에듀넷 제공). 이러한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을 기반으로 한 수업 활용의 예는 <표 6>과 같다.

IV.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

1.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수업 주제

디지털 시민성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디지털교과서의 특징 및 주요 기능과 연결하여 <표 7>과 같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수업 주제를 제시하였다.

표 6 — 디지털교과서 기반 수업 활용 예시

구분	수업 활용 예시
디지털교과서 내장 기능	디지털교과서 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디지털교과서 내 콘텐츠를 공동으로 시청하고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의견 토의하기
	디지털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평가 문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수업 활동 평가하기
	디지털교과서 문제 해결 학습에 관계된 모둠 활동에 참여하기
	디지털교과서 핵심 내용을 강조하거나 중요 사항 정리해 주기
위두랑 커뮤니티 활용	개별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위두랑에 게시하여 공유하기
	위두랑의 과제를 모둠별로 해결하고 피드백 나누기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급과 함께 위두랑으로 연결하여 교류 학습하기
	모둠별 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고 공동 보고서 작성 후 위두랑에 공유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개별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위두랑에 게시하여 공유하기
	모둠별 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고 공동 보고서 작성 후 위두랑에 공유하기
	자료 정리 및 발표 자료 제작을 위한 공동 프레젠테이션 작업하기

표 7 —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별 수업 주제

디지털 시민성 요소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주제
디지털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활용 및 정보 검색	올바른 정보 검색 및 미디어 활용 방법
디지털 의사소통	위두랑 커뮤니티를 활용한 토의·토론	온라인 의사소통 시 올바른 언어 사용법, 댓글로 표현하고 공감하기
디지털 윤리	디지털교과서 활용 준비	14세 미만 부모 동의의 중요성 및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책임감	디지털교과서 기기 및 인터넷 자료 활용	디지털 기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사용법, 지적 재산권 보호
디지털 창의성과 협력	인터넷, 비디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활용과 위두랑 커뮤니티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다른 교실 및 실제 현장과 교류 협력, 위두랑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2.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럴 때 학생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그대로 복사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출처나 생산 날짜 등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디지털교과서 뷰어 기능 중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디지털교과서 하단 메뉴와 선택 메뉴의 에듀넷·티-클리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두랑 학습자료 첨부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한 정보를 학급 위두랑에 바로 탑재할 수 있어서 자료를 공유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기능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면서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자연스럽게 배양하게 된다. 또한 검색한 자료가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인지, TV 뉴스 채널 또는 신문 기사 등이 믿을 수 있는 방송 매체의 자료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후 정확하고 신뢰하는 자료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도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출처와 생산 날짜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교육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3. 디지털 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와 함께 온라인 의사소통 도구인 위두랑을 사용한다. 위두랑 커뮤니티 활동 시 ‘좋아요’ 누르기와 ‘댓글 쓰기’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데 매우 유익한 활동임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의사소통 시 학생들이 어법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친구를 비난하는 용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온라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채팅에 익숙한 학생들이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무시하고 발음대로 글을 적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교사가 위두랑 게시판을 통해 소통도 엄연한 수업의 한 부분이며 수업 중에는 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몇몇 학생들이 작성한 댓글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댓글을 작성할 때 적절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거나 심심할 때 아무 의미 없는 표현들을 댓글로 올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댓글을 작성한 학생에게 댓글의 의미를 묻고 이와 같은 행동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인지시킨다. 또한 잘한 결과물에 대해 ‘좋아요’나 ‘하트’를 표시해야 하는데 내용과 관계없이 좋아요나 하트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댓글에 친구를 비난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속어는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이며 언어 폭력이자 학교 폭력에 해당됨을 강조하여 친구의 의견이나 결과물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4.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14세 미만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하에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잘 모르거나 가정 통신문을 통해 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의 첫걸음은 14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부모 동의 절차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사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송호진과 정의태, 2018). 특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나 패드에 친구의 사진을 도용하여 배경화면으로 바꾸어 놓거나, 무의식적으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태블릿에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초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친구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찍어 장난치는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번호를 부여하여 학생별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기기를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장난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디지털 책임감(digital responsibility)

디지털 책임감은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제작한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PC와 충전 도구, 무선 AP, 터치펜, 키보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드웨어는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임에도 함부로 다루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역할놀이, 모둠별 토의 활동을 통해 태블릿, 터치펜, 키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하는 수업을 통해 디지털 기기(하드웨어)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다. 디지털교과서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올바르게 책임감 있는 사용 또한 필요하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부터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경우,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자신이 정리한 노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이 작성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모둠별 토의 및 탐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은 수업 활동의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공유하게 된다. 디지털교과서 노트 기능을 이용한 보고서 형태, 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형태, 영상물을 제작하는 형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영상물을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할 경우 동영상 파일의 용량 초과로 위두랑 클래스에 업로드하지 못하고 다른 미디어 채널에 탑재하고 그 주소를 위두랑 클래스에 공유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영상물이 수업 이외의 공공 사이트에 공유되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디지털 창의성과 협력(digital creativity & collaboration)

디지털 창의성과 협력은 디지털 시민성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역량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과 교류 협력 수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 먼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자료의 검색과 기록, 저장과 공유 활동을 디지털교과서 뷰어 단위의 기능인 노트와 메모, 자료 연결과 하이라이트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서 작성, 역할 분담, 조사 내용, 과제 수행 과정을 위두랑을 통해 기록, 저장, 공유하면서 모둠별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나간다. 이후 위두랑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프로젝트의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하게 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두 번째로 교류 협력 수업은 학급 간 교류, 전문가 교류, 국제 교류 등의 유형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며, 디지털교과서의 온라인 수업 환경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박상훈, 2018). 교류 활동 전, 위두랑을 통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교류의 목적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토의·토론의 활동을 위두랑과 연계하여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V.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디지털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활용은 더 이상 얼리어답터(early adapter)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95%를 차지해 27개의 조사 대상국 중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사회는 산업 사회의 시민성과 구별되는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와 개념, 디지털 시민의 역량 및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매일같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향과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고찰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 및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와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제시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 초·중등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개념적 접근을 넘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학교 현장과 수업 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더욱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 및 구성 요소는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미국의 ISTE는 디지털 사회의 순기능보다 역기능 예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영국의 JISC는 정보, 미디어, ICT를 구분한 리터러시의 개념과 디지털 소통과 협력, 학습 기술, 디지털 장학금 등 디지털 사회가 주는 순기능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에는 디지털 사회가 안고 있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디지털 시민성의 큰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요소를 제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잘 활용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 예방을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성세대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사회가 주는 순기능 활용을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를 개념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창의성’이라는 디지털 시민성 요소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막연한 개념적 접근이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방법에서 디지털 창의성을 ‘위두랑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과정을 하나의 학습 스토리로 만들 수 있다’와 같은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하여 실행력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성 관련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정의하고 길러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생활양식 등을 잘 알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 및 관계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김봉섭, 김현철, 박선아, 임상수(2017). 4차 산업 혁명 시대, 지능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탐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 2017-16.
- 김양은(2010). 정보 리터러시와 정보 윤리. 한국정보화진흥원 편,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은미, 양소은(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회보, 57(1), 305-463.
- 박경미, 박선아, 한유경, 임상수(2018). 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 국회교육희망포럼.
- 박상훈(2018). 온라인 국제 교류 협력 학습 설계 모형 탐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 1-9.
- 이승훈, 김상돈(2009). 인터넷과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탐색적 논의: 인터넷 이용 형태와 온라인 정치 참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1), 31-58.
- 송호진, 정의태(2018).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303-308.
-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지능화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IT & Future Strategy, 제11호.
- Common Sense Media(2009). Digital Literacy and Citizenship in the 21st Century. A Common

- Sense Media Write Paper. Common Sense Media.
- H. Jenkins et al.(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IT press.
- ISTE(2016). ISTE Standards for Students, on line: <http://iste.org/standard>.
- JISC & H. Beetham(2016). Developing Student' Digital Literacy, on line: <http://www.jisc.ac.uk/guides>.
- M. Choi.(2015).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Digital Citizenship among Young Adult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 L. Jones & J. K. Mitchell(2015). Defining and measuring youth digital Citizenship, New Media & Society, 18(9), 2063-2079.
- M. S. Ribble & G. D. Bailey(2004). Digital citizenship focus questions for implementation. Learning & Leading with Technology, 32(2), 12-15.
- https://st.edunet.net/viewCntl/dtlIntro?in_div=nedu
- <http://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필자 소개

세명대학교 교육과정연구개발센터장. 첨단 교수법 적용 및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컴퓨터 교육



박판우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1. 들어가며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유럽 속의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피식민 지배, 내전, 높은 민주화 의식과 교육 수준 등 우리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과 러시아의 오랜 식민 지배를 벗어난 이후에도 내전을 겪는 등 아픔을 공유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선진국 중에서도 성공한 사회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핀란드가 세계적인 복지 국가라는 사실에 이견을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타 분야에 비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언제나 세계의 선두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지하자원 환경에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안정되고 수준 높은 공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이를 경제 성장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5년에서 7년을 주기로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여 중요한 교육적 가치와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교과 내용을 개정하고, 수시 개정을 통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의 핀란드 교육과정은 201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9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필수 역량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에스토니아, 영국 등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가에 대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에 대한 자율화 정책을 통한 상향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하는 미국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핀란드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컴퓨팅 역량을 미래사회의 핵심으로 선정하여 2016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KOODI2016(CODE2016)을 발간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발표하여 시행하였다. 본 소고에서는 핀란드의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핀란드의 컴퓨터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고 역으로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을 성찰하고자 한다.

2. 핀란드의 교육과정 체제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체제와 많

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제를 초등,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중학교 과정까지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핀란드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지원되는 차이점이 있다.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핀란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역량과 학습내용은 제안하지만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페미센 일로’(oppimisen ilo, 학습의 즐거움)의 관점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개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주입식, 암기식의 교육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하여 핀란드는 창의 탐구, 흥미 위주의 교육 내용을 우선한다.

핀란드 교육은 100%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수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체 9학년 과정이 1개의 종합학교를 통하여 운영되며, 1~6학년의 저학년과 7~9학년의 고학년으로 편성된다. 필수 교육과정 이후에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및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수학한 뒤 각각 일반 대학과 폴리텍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 다만 고등학교 계열의 전환이 가능하며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 점이 특징이다.

3. 핀란드의 컴퓨터 교육

핀란드의 소프트웨어기반 컴퓨터 교육은 2016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수·학습 내용과 세부 역량 및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그 내용이 우리보다 훨씬 깊고 강하다.

사실 핀란드도 컴퓨터 교육을 2016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핀란드 교육 당국은 교단 선진화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보급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2010년에 와서는 ICT 중심의 급격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성 위주의 변화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한 강력한 추진을 시행하였다. 당시 국가 전략을 발표하여 ICT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교육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수준의 목표와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의 적극적인 ICT 활용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대적인 교사 연수, 모든 학교에 ICT를 위한 기본 인프라 보급, 고품질의 이러닝 교수·학습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ICT 활용 역량 개발과 동료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2010년에 제시된 이와 같은 ICT 교육의 국가 수준 전략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교육이 본질적인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장과는 거리가 있고 활용 교육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 필요와 함께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따라 핀란드도 코딩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2016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였다. 2016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격적으로 도입된 배경 중의 또 다른 이유는 2012년 PISA결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급격한 성취도 하락이다. 핀란드 정부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함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여 코딩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핀란드의 2016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교육은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함께 KOODI2016(CODE 2016)을 발간하여 코딩 관련 교수·학습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핀란드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에 대하여 학년군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한 것인데 신승기(2015) 연구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핀란드의 필수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제시되어 있는 컴퓨터 교육의 교수·학습내용을 살펴보면, 핀란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학년군의 형태로서 학교급 및 학년별 위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학년군에서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는 단계로서 기존의 ICT 교육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학습 내용이 제시되고 상위 학년에서 이어지는 프로그래밍 활

동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2학년군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비롯하여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흥미를 갖는 데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6학년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인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흥미 기반의 프

로그래밍 활동을 요구한다. 프로그래밍 도구는 스크래치, 앱인벤터, 로고 등의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프로그래밍 언어를 추천하고,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놀이와 프로그래밍의 혼합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7~9 학년군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이가 나타나는 단계로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중학교 단계에서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표 1 — 핀란드 컴퓨터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 및 프로그래밍 도구¹

학교급	학년군	교수·학습 내용	
초등학교	1~2학년군	교수·학습 내용	프로그래밍이 명령어를 컴퓨터에게 전해 주는 것임을 이해한다.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전략과 모델에 긍정적이며 즐겁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래밍 도구	CS Unplugged, Robottleikki, Computer Science-a-Box:Unplug Your Curriculum, Computer Science for Fun
	3~6학년군	교수·학습 내용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Visual programming languag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에 해당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핀란드어로는 Miniohjelmointikieli(mini programming language)라고 부른다. 그래픽 기반의 Visual programming language를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흥미있게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래밍 도구	Scratch, Kodu, Alice, App inventor, Logo, Turtle Roy
중학교	7~9학년군	교수·학습 내용	Actual programming language에 해당하는 텍스트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다. 특별히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프로그래밍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을 실시한다.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과 동기를 유발한다
		프로그래밍 도구	Khan Academy, W3 Schools, Udacity, Codecademy, Code Schol, EDX, Helsingin yliopiston MOOC, MIT OpenCourseWare, Processing, Coursera, Code Avengers, Code Combat, ruby warrior, Dash, Kinesthetic Learning Activities

1 신승기, 배영권(2015). 핀란드의 코딩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고찰.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권 1호.

텍스트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로와 직업 선택의 일환으로 컴퓨터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복잡한 프로그래밍의 문법에 대한 학습보다는 문제 해결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동기 유발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핀란드의 컴퓨터교육은 학습자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인지적 발달 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에서는 블록 기반 언어를, 중학교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

도록 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습 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제시하여 현장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 내용 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4. 맺음말


핀란드는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 복지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까지의 무상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설계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요인 및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핀란드의 소프트웨어 기반 컴퓨터 교육은 우리나라보다 한해 늦은 2016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체제가 완성되었으나, 핀란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선진 교육 환경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질적 양적인 면에서 훨씬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의 의지가 모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실천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교육의 관점에서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전체의 단계에서 세부적인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에 미치는 시사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에서 17시간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적인 코딩 관련 교육은 중학교에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한 핀란드의 초등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초등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유연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언플러그드, 로봇 등의 컴퓨팅 도구를 갖고 놀이 중심의 소프트웨어 학습을 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6학년이 되어서야 시작하는 것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모든 학생이 미래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 사고력을

키우는 데 이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 도구의 선택 기준과 교수·학습내용은 국가 간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교육은 위계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컴퓨터교육도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위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다양한 교사 연수 및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문헌

- 박판우 외(2019).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내용 체계 및 교과 편성의 설계에 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3권 3호.
- 신승기 외(2015). 핀란드의 코딩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고찰.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권 1호.
- Koodi2016(2014). Koodi2016-ensiapua ohjelmoinnin opettamiseen peruskoulussa. Retrieved from https://s3-eu-west-1.amazonaws.com/koodi2016/Koodi2016_LR.pdf
- Ylä-Jääski(2013). Education in Finland: Pisa isn't the full story. the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teacher-network/teacher-blog/2013/dec/04/education-finland-pisa>
- 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3). The Results of PISA 2000. Retrieved from <http://www.minedu.fi/pisa/2012.html?lang=en>
- Heinilä(2014). Future will be built by those who know how to code. SITRA. Retrieved from <https://www.sitra.fi/en/articles/future-will-be-built-those-who-know-how-code>
- European Schoolnet(2014). Computing our future-Priorities, school curricula and initiatives across Europe.
- EDU.fi(2010). National Plan for Educational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trieved from http://www.edu.fi/download/135308_TVT_opetuskayton_suunnitelma_Eng.pdf
- European Schoolnet (2014). Computing our future-Priorities, school curricula and initiatives across Europe.

필자 소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한국정보교육학회 회장,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공동 회장을 역임하였고, 대구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코로나 시대의 독서 교육

'집콕 독서'와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하고운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

1. 들어가며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잠시 멈춤의 시간 속에 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밀집된 교실에서 하루 종일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두 달이 넘도록 학교에 발을 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며 학사 일정을 새로 짜고 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결정, 그 후로 한 달 넘게 전국의 교사들이 불철주야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다.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느새 한 달째 온라인 수업은 곳곳의 암초들을 피해 나가며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 교육의 경우는 어떨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의 일부를 떼와서 읽는 '쪼글' 읽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천천히 깊이 읽는 즐거움'을 직접 느끼게 하려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무척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량을 줄인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한 권 읽기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교사들에게 학습 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사리 진행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독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서울

시교육청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집콕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집에 콕 박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본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집콕 독서라는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그중 원하는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읽은 후 독후 활동을 하도록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글은 학생들에게 집콕 독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용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집콕 독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집콕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어떻게 연계되어 수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독서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 보고자 한다.

2. 집콕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집콕 독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독서활동을 통해 개학 이후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 재택 독서 프로그램이다.

개학 연기가 확정된 후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별 협의회를 열어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이때 집콕 독서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추천할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¹ 세 가지 독후 활동을 안내하여 마음에 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하였다.² 수업 시간에 교사의 도움을 얻어 가며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른 학습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책 읽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집콕 독서 활동을 안내한 이후 2학년 문학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온라인 개학일인 4월 16일에 실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콕 독서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집콕 독서 안내문이 3월 11일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으니,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셈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5월 연휴 직후인 5월 6일에 실시하였으며, 집콕 독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전체 148명 중 140명이,

1 추천 도서 목록은 주로 문학 분야에서 추천하였다. 학생들이 혼자 책을 읽을 때 소설책을 좀 더 편안하게 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타 교과에서도 교과 도서 목록을 제공하였기에 이때 지식 정보 위주의 책을 여러 권 읽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록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2 독후 활동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독서 일지 쓰기 2) 서평 쓰기 3) 브이로그 만들기. 서울시교육청에서 배포한 활동지를 참고하였으며,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했다. 따로 과제 제출 기한은 설정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120명이 응답하였다.

책을 다 읽었느냐는 응답에는 다 읽었다 45.8%(55명), 다 읽지 못했다 54.2%(65명)으로 다 읽지 못한 학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어도 집콕 독서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았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응답이 59.2%(71명), ‘독서 과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응답이 26.7%(32명)이었다. 개별 응답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시간이 부족했다’, ‘책을 잘 읽지 않아서 실제로 많이 읽진 못했지만 좋았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독서 습관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억지로 읽었는데 좋은 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등의 긍정적 답변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집콕 독서 목록을 제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나’라는 질문에는 81.7%(9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추천 도서 목록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했다.

그러나 집에서 책을 읽는 것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것 중 무엇을 더욱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68.3%(82명)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읽는 것을 택했다. 집에서 과제로 읽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은 29.2%(35명)이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개학 기간 동안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독서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집콕 독서를 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주관식 응답으로 받은 결과, 학생들은 집콕 독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책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도서 목록을 보면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도서에 대한 정보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도서 목록을 활용한 집콕 독서는 일종의 독서 터닝 포인트로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중력이 부족했다, 끝까지 읽기 어려웠다,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등이 집콕 독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주요 답변이었다.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의 대부분은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추천 도서에 대한 정보와 시간적 여유, 독서 습관이 반겨 줄 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책을 끝까지 읽고 읽지 않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니엘 페냐크가 『소설처럼』에서 주장했듯이 우리에게 책은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것, 책을 제대로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 - 그것이 바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목표이다. 역지로 책을 읽도록 강제해서 학생이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 독서교육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집콕 독서 역시 다르지 않다. 학생들이 책읽기를 편안하게 느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3. 집콕 독서 도서 목록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방안

등교 개학 이후 집콕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연계하기 위해 미리 교과서를 살펴본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에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이 주요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문학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도서 목록을 꾸리고, 각 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먼저 박완서의 『나목』,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한국 장편 소설 목록으로 제시했다. 세 작품 모두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편 소설이라는 특성상 수업 시간에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품들이다. 장편 소설은 자주 끊어 읽으면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쪽 읽어나가는 편이 더 좋은데, 이러한 특징이 재택 학습이라는 상황과 잘 맞아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위 세 작품을 추천하였다.

또한 지금 여기의 한국 문학을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이주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도서 목록에 넣었다. 본교가 여고인 점을 고려해 여학생들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 소설집을 추천으며, 이는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더욱 적절한 목록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³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문학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또한 추천 도서 목록에 추가하였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해당 도서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학과 삶이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책들을 통해 이해하길 바랐다.

문학 작품 대신 인문학 도서를 읽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김이경의 『책 먹는

3 추천 도서 목록으로는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 교육 분과(물교방)에서 정리한 2020 추천 도서 목록을 추천한다. 전국의 국어 교사들이 함께 독서 교육을 연구하고, 실제 수업 때 학생들에게 읽힌 책을 추천하고 있기에 활용도가 높다. <http://reading.naramal.or.kr>

법』, 정여울의 『공부할 권리』, 이진순의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김지수의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등을 추천했다. 학생들의 나이가 열여덟인 만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가 자기 인생의 주요 질문으로 떠올랐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학 도서에 비해 인문학 도서를 택한 비율은 전체의 25% 정도로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제1차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었는지와 책에 대한 만족도를 1~5점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책을 끝까지 읽었다고 답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작품은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과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였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중도 포기 비율이 높았지만, 끝까지 다 읽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다.

올해는 수업일이 줄어들어서 학생들과 여유롭게 수업 중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때 집콕 독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징검다리가 되어 줄 수 있다. 이미 등교 개학 전에 책을 읽어 왔으니 독후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과제형 수행 평가가 금지되어 있어 학생들이 집에서 각자 활동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읽어 온 것을 바탕으로 질문이나 토론 주제를 공유해서 독후 활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⁴

개인별 활동으로는 서평 쓰기와 에세이 쓰기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 책을 끝까지 읽었더라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사실상 수행 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니 강제성이 낮고, 또한 서평 쓰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으니 더욱 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후, 책과 나의 삶을 연계한 글쓰기 수행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서평 혹은 독서에세이 어느 것이라도 좋다.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어 온 학생들을 위해 한두 시간 정도를 독서 시간으로 확보한다면 더욱 좋다. 미리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도 수업을 제대로 듣고 다시 자기 글을 돌아보고 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용하다.


모둠별 활동으로는 같은 책을 읽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책 대화하기와 구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 거리를 각자 써 와서 모둠별로 공유한 후 서로의

4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다양한 사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나의 책 읽기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어떻게 할까? 등을 참고하면 좋다.

질문에 대해 답하고 토론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 후 교사가 구술 평가 문항을 공개하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책을 바라보면서 다각도로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나가고, 정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이다. 이때 책을 끝까지 다 읽은 학생은 책을 다 못 읽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독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4.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한 권 읽기를!

코로나 시대에도 독서 교육은 계속된다. 독서교육 활동가인 송승훈 선생님은 학생들과 시집 읽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직접 시집을 읽는 모습을 30분 가량 녹화해, 학생들이 그 영상을 틀어놓고 각자 자기 시집을 읽도록 부탁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은 자기 집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각자의 시집을 읽는 것이다. 시집을 읽는 30분이 끝나면 학생들은 각자 노트를 꺼내 독서 일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 교실이 아닌 환경에서도 독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바야흐로 원격 독서 수업의 시대다.

앞으로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지속적인 질병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여지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독서는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집콕 독서’는 혼자 책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무척 유용하지만, 그 한계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 ‘집콕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으로 독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7).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 김영란 외.
서울시교육청 집콕 ‘프로그램’ - 집콕 독서 안내 <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413&bbsBean.bbsSeq=8>
다니엘 페냐크(2004). 소설처럼. 문학과지성사.

필자 소개

문학을 좋아해서 국어 교사가 되었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는 교실을 꿈꾼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통해 바라본

영화와 관객의 상관관계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영화계의 경우 영화관이라는 실내 공간에서 상영되는 특성과 초기 확진자들이 설 연휴를 맞아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동선이 발표되면서 관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설 연휴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종영하게 되었고, 개봉 예정작들도 개봉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개봉을 했어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종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에 오를 때만해도 한국 영화의 앞날이 밝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영화 산업이 올 스톱 되어 버렸다. 물론 코로나 19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아지고, 다시 관객들이 찾아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이 틈을 타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루었다는 뉴스를 통해 안방 1열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보편화되며 영화가 가진 원래의 의미가 확대 재해석되며 영화 산업의 판도가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이쯤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세계 최초의 영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까? 혹시 어



황보성진

황보영화교육연구소 대표

디선가 영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책을 본 적이 있거나 교양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다. 사실 갑자기 왜 영화 역사를 언급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영화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화의 탄생 비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답을 빨리 공개하고자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문학이나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과 달리 영화는 생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1895년 12월 28일에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최초의 영화가 탄생됐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 따진다면 세계 최초의 영화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발명의 왕 에디슨이 될 뻔했었다. 그는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라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상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움직이는 그림, 즉 모션 픽처(Motion Picture)를 관객들에게 보여 줬지만 기계 특성상 관객 혼자만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림 1 — 키네토스코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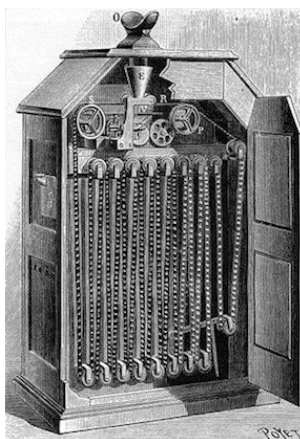


그림 2 — 키네토스코프 광고

그 후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라는 카메라를 만들어 직접 촬영한 영화를 33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상영했는데 사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화와는 천지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장소에서 한 컷으로만 촬영된 매우 짧은 영상들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었다. 사실 이들이 서로 카메라를 만들어 영화를 제작하던 시대에 미국과 프랑스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이루어

졌었다. 그런데 유독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 감독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상영을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이다.



그림 3 — 뤼미에르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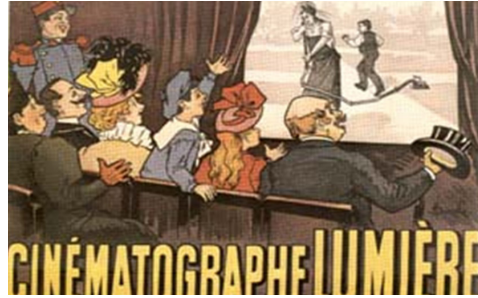


그림 4 — 초기 영화관 모습

그로 인해 결국 세계 최초의 영화는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다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지금까지 프랑스는 영화 탄생 국가로 기록되며 세계 3대 영화제 중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의 위상이 다른 영화제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칸 영화제의 폐막식은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봉준호 감독도 이곳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었다.

여하튼 다수의 관객 대상 상영 여부로 영화의 탄생 시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화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얼마 만큼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항상 박스오피스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해도 영화관에 관객들이 없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필름(Film,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로 촬영한 영상을 다 포함한다)과 스크린(영화관), 관객인데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영화를 봤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필자가 시사회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시대에 시사회에 당첨되어 늦을까봐 택시까지 타고 영화관에 간 적이 있었다. 영화관 안은 이미 관객들로 꽉 차 있었지만 30분이 지나도 영화가 상영되지 않았다. 당시는 영화 검열이 심하던 시대였는데 영화 속 장면이 문제가 발생하여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 많은 관객들은 그냥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즉 영화관과 관객은 있었지만 필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영화의 경우 아주 오래 전에 촬영이 다 끝났지만 극

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개봉을 하지 못한 채 묵혀 있는 일명 ‘묵은지 영화’ 또는 ‘창고 영화’로 불리는 영화들도 있는데 이 역시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다. 작은 영화 단체를 운영하면서 영화 상영회를 했는데 상영할 작품도 있었고, 상영할 공간도 있었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되었지만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었다. 과연 그때 영화를 상영했을까? 정답은 안 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나와도, 아무리 수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끝인 것이다. 반대로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아도, 저예산 영화라도 관객들이 많다면 그 영화는 대박 영화가 되는 것이다. 익히 알고 있는 「워낭소리」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얼마 되지 않은 제작비로 제작된 영화였지만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2003년에 개봉한 「실미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총 19편의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천만 영화로 등극하면서 당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바로 영화와 관객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¹에 실린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²에 대한 얘기에 앞서 영화의 역사를 비롯한 관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영화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빠와 함께 집이 사라져 버린 지소는 동생 지석이랑 엄마와 함께 미니 봉고차에서 살고 있다.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평당 5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평당이라는 곳에 500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믿은 지소는 부잣집 강아지를 흠친 후 현상금 500만 원의 전단지가 붙으면 돌려줄 생각으로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한다. 그리고 흠칠 개를 물색하던 지소는 엄마가 일하는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의 개 ‘월리’를 목표로 정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흠칫 놀랄 수밖에 없는 제목을 갖고 있는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은 미국 작가인 바바라 오코너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린이이며, 어른들은 악역이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귀여운 강

1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pp.198~207.

2 감독 : 김성호, 출연 : 이레, 이지원, 홍은택, 김혜자, 강혜정, 최민수, 이천희, 제작 : 삼거리픽처스, 개홍방 문화산업전문 유통회사, 배급 : 리틀빅픽처스, (주)대명문화공장, 개봉일 : 2014년 12월 31일.



그림 5 —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

아직까지 등장하는 완벽한 어린이 영화이지만 전체 관람가 영화답게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좋은 내용의 영화이기도 하다. 특히 원작 소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라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고, 어린이 연기자들과 김혜자, 강혜정, 최민수 등의 중견 연기자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윌리 역을 맡은 강아지의 연기 모두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집을 잃은 아이들이 집을 찾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될 일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결코 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막연히 판타지스러운 결말보다는 현실 가능한 결말을 보여 주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집 없이 작은 차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작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며 요즘같이 웃음을 잃은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하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충만한 영화이다.

하지만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은 개봉 이전에 진행한 시사회 등을 통해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 동화 같은 영화 등등의 찬사를 받았지만 최종 30만 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하는 데 그쳤다. 사실 이 영화의 개봉일은 2014년 12월 31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 관람 성수기인 설과 추석 연휴, 여름방학,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 시즌 중에 포

함되는 작품이다. 아마 가족 관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시즌에 개봉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2주 전에 「국제시장」이 개봉하여 온 국민의 눈물을 훔치며 5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은 총 1,4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20년 현재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와 함께 상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영 극장의 수와 상영 횟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시장」은 천만 관객 흥행 기록을 세우기 위해 대기업 영화 배급사가 941개의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었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205개 스크린으로 개봉했는데 영화의 배급을 맡은 중소 배급사의 힘으로는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그 후 점차 스크린 수가 감소되면서 개봉 40일 후에는 19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되었다. 그러나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완성도 높고, 좋은 영화라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관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영관 확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개봉 42일 이후에 25개의 스크린을 추가 확보하여 총 44개의 스크린에서 재개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봉을 앞둔 또 다른 영화와 마찰이 생기는 등 상영에 따른 아이러니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³

이처럼 영화는 언제나 냉정하게 관객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평가의 기준이 작품의 내용을 떠나 관객 수로 결정되는 것은 영화 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과서에서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시나리오 중에 지소와 엄마의 갈등 상황이 표현된 부분을 보여 주며 가족 간의 갈등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만약 필자가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면 이 내용 이후에 좀 더 영화적인 질문으로 변형/확장하여 학생들에게 영화관 독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모든 영화들이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제작되지만 그들의 열정과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유명 배우가 나오지 않고, 저예산이라는 이유 등 단지 흥행성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영화관에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적은 스크린 수에도 불구하고, 상영 시간을 관객들이 오기 힘든 아침이나 늦은 밤

3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참고.

시간대에 배정하거나 다른 영화와 교차 상영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관객들 중에 자신만의 주관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예고편이나 홍보 영상 등을 보고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듣거나 관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 등을 접하고 난 뒤 무작정 영화관으로 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블록버스터 영화들처럼 엄청난 제작비와 화려한 스타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작품들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관객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저예산 영화, 소규모 상영 영화들을 통칭하여 다양성 영화라 일컫는다. 사실 이 영화들이 흥행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양성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발상과 도전 정신은 그간 흥행 중심의 상업 영화에 지친 관객들에게 비타민 C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관심 있게 지켜 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기에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같이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의 영화들이 나오지 않도록 블록버스터 영화에 쏟는 열정만큼 우리 관객들이 다양성 영화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준다면 2019년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 이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 영화계에 제2의 봉준호 감독이 빠른 시일 내에 탄생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화 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 소개

한양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한 영화학 박사로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문화 예술 교육으로서 영화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영화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대학에서 영화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제주까지 영화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무조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다.



김경진

천재교육 지도 제작자

낮선 지하철역을 헤맨 적이 있다. 이리 저리 돌아다녀 봤자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때 나타난 한 장의 지도. 지도를 보는 순간 모든 답답함이 한순간 사라진다. 낯선 세상에서 내 위치가 '자리매김'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분주한 사람들과 생경한 상점들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자리매김 되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내 머릿속 지도의 빈곳이 채워지는 순간이다.

지도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복잡한 세상의 일원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020년 4월 '코로나 19. 위기의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지중해에 있는 장화 모양의 땅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동편 아시아 끝의 반도에 살고 있는 나와서 거리가 떠 오른다. 오늘날 지도는 공간과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지도를 통해 모든 것이 자리매김 된다.”

책에서 본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인해, 나는 지도의 가능성을 보았고, 지도는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었다.

세 번의 기회

대학교에서는 디자인과 광고를 전공했다. 밤새워 공모전을 준비하며 늘 유명 광고 회사에 들어가길 꿈꿔 왔는데, 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첫 직업은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였다. 미술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에게 늘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 왔는데, 결국 화가가 되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일을 찾을 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은사님이 아트디렉터로 계신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냈다. 출판사에서 한 일 중에 일부가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는데, 당시는 내가 지도 제작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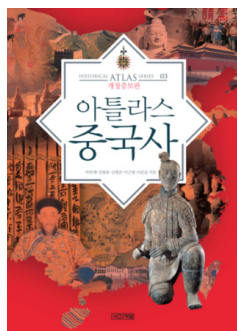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졸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인을 통해 작은 출판 기획사를 소개 받았고, 이후 꾸준히 어린이 동화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인생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의 유래는 모르겠으나 나에게도 기회는 찾아왔다.

그 첫 번째는 이러했다. 어느 날 일하던 출판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난 여느 때처럼 그림을 발주 받을 생각으로 기획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현재 그림책 전집을 기획중인데 입사해서 화가를 선정, 발주하고 컨트롤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건 아트디렉팅인데!’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늘 보아왔던 그것 아트디렉팅이었다. 욕심이 났다.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50여 권의 책을 일 년에 걸쳐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책을 만들며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을 마음껏 담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그중 다섯 권의 책은 영국 킥피셔 출판사로 판권을 수출할 수 있었다. 당시는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기회. 행운(기회)은 사람을 통해 온다고 한다. 나에겐 누군가로부터 일을 제안 받는 형태로 찾아왔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지 못하게 조용히 다가왔다. 사계절 출판사의 ‘아틀라스 시리즈’는 지도 제작자로서의 나를 있게 한 책이다. 그 책을 통해 지도 제작자의 길로 들어섰으니,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책이다. 당시 책을 기획하신 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출판사의 편집장이셨고, 나에게 찾아온 때는 아틀라스 시

리즈 1권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후 2권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 미팅 때 편집장은 나에게 지도책 원서를 보여 주셨는데, 힐셰이딩(음영)이 쓰인 지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책이『아틀라스 중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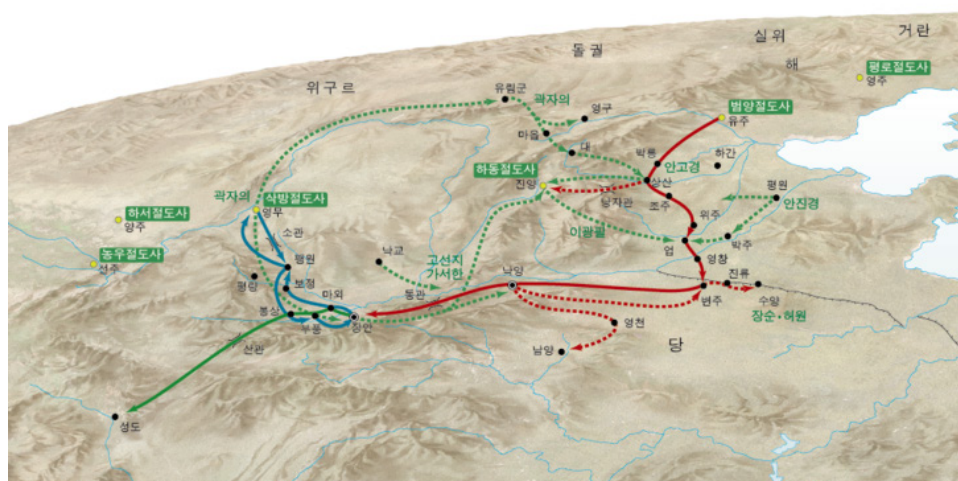
사계절 출판사의
『아틀라스 중국사』 표지



『아틀라스 중국사』 본문

힐셰이딩은 ‘지형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생기는 음영’을 말한다. 『아틀라스 중국사』를 작업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 하나가 힐셰이딩이다. 역사 지도에서 음영은 지도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현재는 음영을 제작할 때 아크GIS(지도 제작하는 툴)를 사용하지만. 당시는 GIS는 나



『아틀라스 중국사』에서는 구형 지도를 손으로 직접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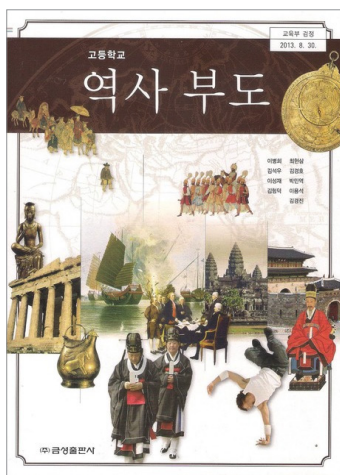
ArcGlobe를 활용한 구형 지도

에게 생소한 도구였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역사 지도책들을 참조해 포토샵으로 음영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지도 제작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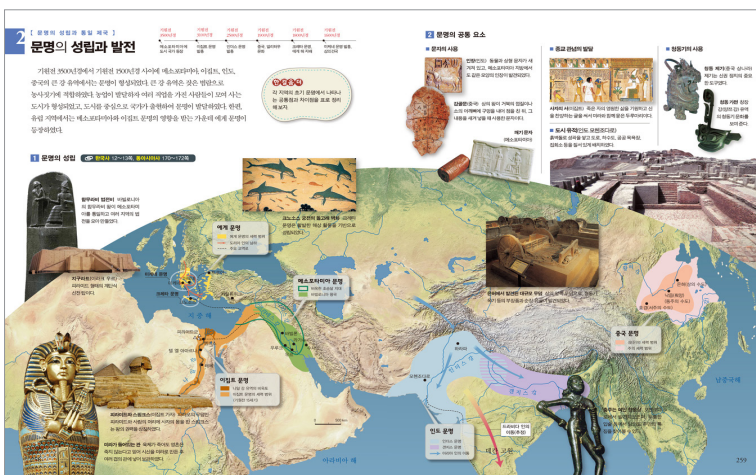
구글 어스를 켜면 동글란 지구본 형태의 지도가 나타난다. ArcGlobe(지도 제작하는 툴)를 활용하면 이러한 지구본 형태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책에서 구형 지도를 잘 활용하면, 더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레이아웃이 가능하다.

손으로 그린 지도는 따뜻한 감성이 남아 있다. 수고가 많은 만큼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GIS를 활용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손으로 음영을 그리지 않는다. 한때 목공예 관심이 있어 가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도구가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가구를 만드는 데는 정말 다양한 도구가 쓰인다. 망치와 톱만으로 훌륭한 가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적절한 도구를 찾아보는 편이 훨씬 낫다. GIS는 지도를 그리는 최적의 도구이다. 힐셰이딩(음영) 만큼은 GIS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도에서는 감성과 느낌보다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틀라스 시리즈는 중국사 이후 일본사, 중앙 유라시아사로 이어졌고, 나는 점차 지도 제작자로 여러 출판사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회로 ‘아트디렉팅’을 경험했고, 두 번째 기회로 ‘지도 제작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기회는 교과서 시장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지도책을 아트디렉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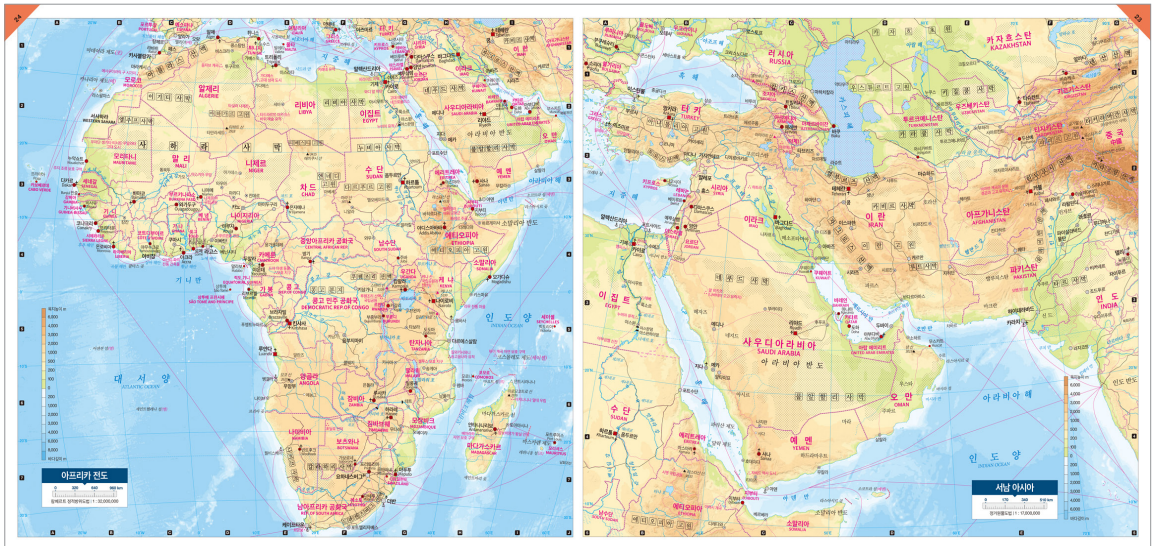
금성출판사『고등학교 역사 부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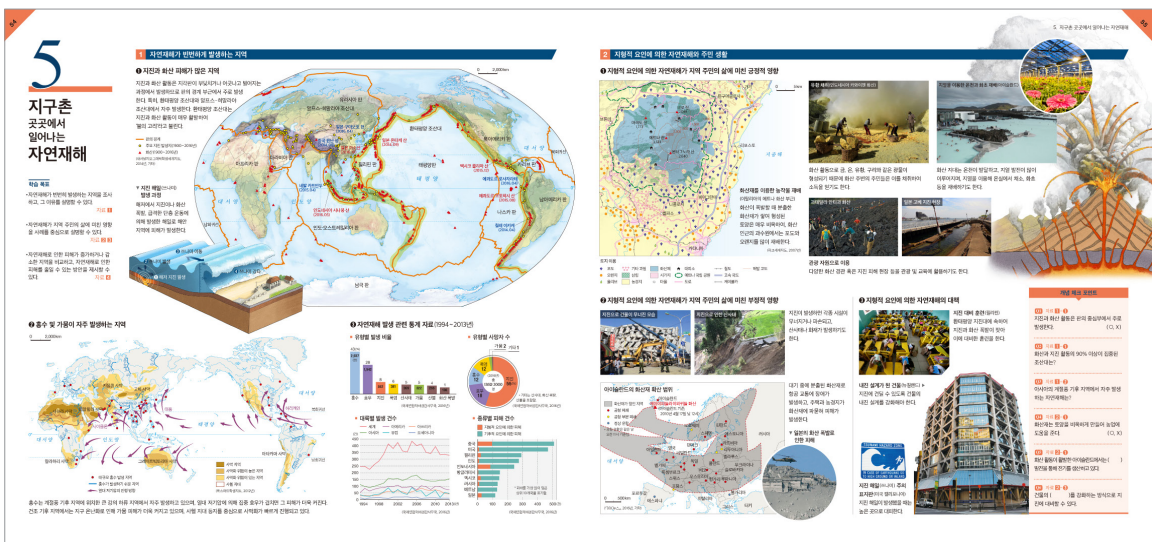
금성출판사『고등학교 역사 부도』 본문

지도 제작자로 점차 알려지면서 교과서 출판사에서 의뢰가 오기 시작했다. 교과서 중에 지도 제작자를 필요로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역사 부도, 사회과 부도이다. 처음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작을 의뢰 받았을 때는 선뜻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교과서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걸고 전념해야 하는 일이라 얻는 만큼 포기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 당시 단행본 시장에는 규모가 큰 기획물들이 쏟아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과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긴 시간을 고민한 후에 결국 교과서 출판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늘 만들어 오던 책이기에 ‘책 한 권 만드는 것쯤이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최대치의 결과물을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합격과 채택률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을 위해 기존 교과서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외형체제의 제한이 처음 풀린 때였고, 페이지 수 제한도 없었던 시기라 외형 체제를 통해 큰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다. 팀에서 ‘판형이 작고 대신 페이지가 많은 책’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차별화된 외형은 먼저 저자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작은 판형의 제약을 기꺼이 감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덧붙여 판형이 더욱 돋보이게 해 주셨다. 그렇게 나온 책이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 부도」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채택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과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타사가



미래엔『중학교 사회과 부도』 일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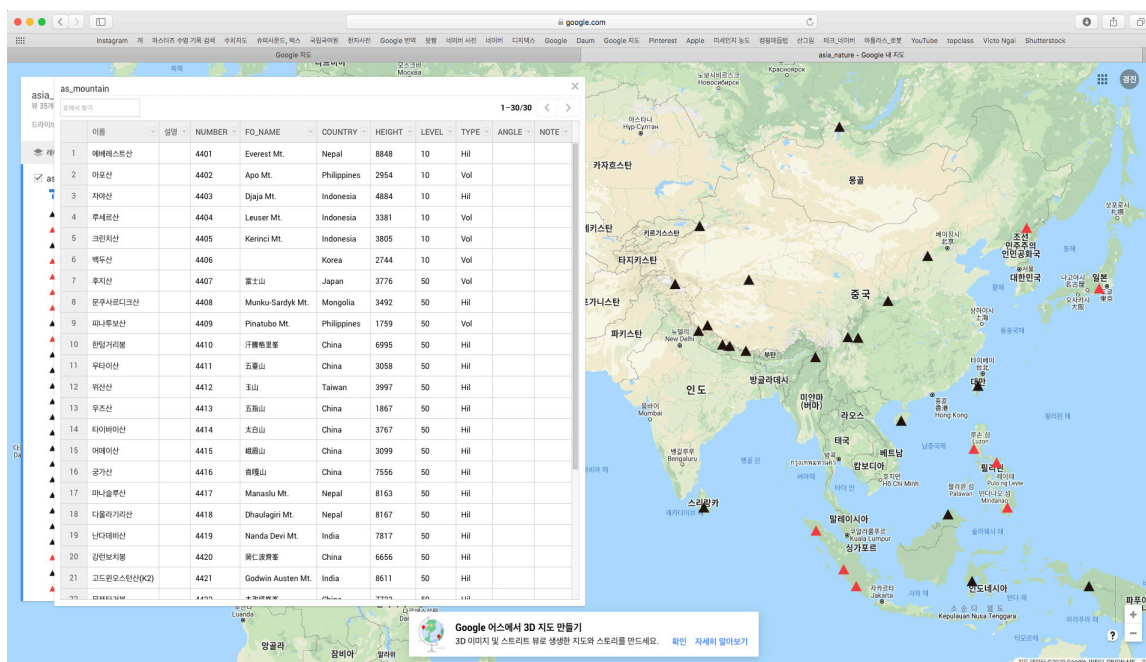
미래엔『중학교 사회과 부도』 본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빼앗긴다. 교과서를 출시하고 받게 되는 성적표는 내게 심적 부담임과 동시에 도전하게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아이디어는 톡톡 튀어 오르는 팝콘과 같다. ‘가로로 넓은 판형의 사회과 부도’가 떠오른 것은 휴일 낮이었다. 당시 ‘일반도(우리나라 및 세계 지도)의 분량을 줄일 수 없을

까?’라는 고민에 빠졌는데, 가로 판형의 사회과 부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판형을 가로로 하면 원래 두 페이지에 걸쳐 들어가던 지도를 한 페이지에 넣게 되면서, 일반도 분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그만큼 줄어든 페이지를 본문과 부록을 더 풍성하게 구성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본문 레이아웃도 좋아졌다. 늘 애매한 세로 길이 때문에 두 개의 지도를 넣자니 공간이 남고 세 개를 넣자니 공간이 좁았는데, 가로 판형은 두 개의 지도를 적당한 크기로 넣기에 딱 좋았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때도 있다.

교과서를 만들며 GIS를 활용한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쯤에서 GIS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 즉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GIS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자가 특정한 장소를 구글 지도에 표시해 작업자와 공유하면 그 위치를 교과서 지도에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지도 위의 지명은 위치뿐 아니라 수도, 인구 등 부가적인 정보가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정보를 엑셀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교과서 지도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가 바로 GIS이다.



GIS를 활용한 지도 제작

남은 숙제

블로그에 내가 만든 지도책을 소개하곤 한다. 간혹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본인을 ‘지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신다. ‘지도를 좋아하다니’ 나는 신기하기만 하다. 지도는 친절하지 않다. 지도 읽기는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다. 쉬운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모든 정보를 동영상으로 재미있고 쉽게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작업을 하면서 늘 저자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글로 쉽게 풀어 주시기를 요청한다. 지도 읽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회과 부도와 역사 부도는 교과서를 보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활용도가 크지 않다고 한다. 이 부분은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픈 부분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지도책을 만드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교과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은 출판사와 저자들에게는 가혹한 채찍이지만 좋은 교과서가 나오기 위한 꼭 필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새 교과서를 만들면서 합격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고, 점유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학생과 선생님께 좋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결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우연과 행운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는 지금 지도 제작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에 만족한다. 처음 지도를 그리며 읽은 와카바야시 미키오의 『지도의 상상력』은 내게 큰 자극이 되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물론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 많은 사람, 많은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고,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자리매김한다.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물이나 인간,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고비사막 한가운데 서본 적도 달의 표면에 서본 적도 없다. 브론토사우루스를 본 적도, 소말리아 내전에 참가한 적도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때로 나 자신의 감정이나 지각보다 훨씬 확실한 사실성을 지니며, 내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확고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지도가 세상 속에 자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리매김하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도구라 믿는다. 

참고 문헌

박한제, 김병준, 이준갑, 이근명, 김형종(2007).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미래엔, 중학교 사회과부도.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역사부도.

필자 소개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교과서 출판사에서 지도 제작자로 일하고 있다. 『아틀라스 중국사』(사계절출판사), 『웅선생 세계사』(사회 평론),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웅진지식하우스) 등의 책에 지도를 그렸다.

탐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번 호는 어린이 청소년 독서교육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소개합니다.

Q —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이 어린이 책을 읽고 어린이와 함께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가꾸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 단체입니다.

1980년 5월에 서울양서협동조합 산하 단체로 창립하여 어린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에 선정한 좋은 동화를 알리고,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 안내 자료를 펴내며 독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국 86개 지역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교실이나 기관에서 책 읽어 주기 자원 활동을 하며, 독서 강연, 책 전시회, 어린이 도서관 설립, 빛 그림 상영 등 다양한 어린이 책 독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최은희, 김명수, 김정화, 나진경, 이윤숙, 지선명)과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를 책과 멀어지게 하는 점수 따기 독서 지도, 감독하고 평가하는 독서 교육, 어른의 목적과 욕심이 앞선 독서 논술사 교육에 반대합니다. 책을 자유롭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누구나 즐거이 책 읽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어른의 인식을 바꾸고, 학교와 공공 도서관의 독서 문화를 가꿉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독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좋은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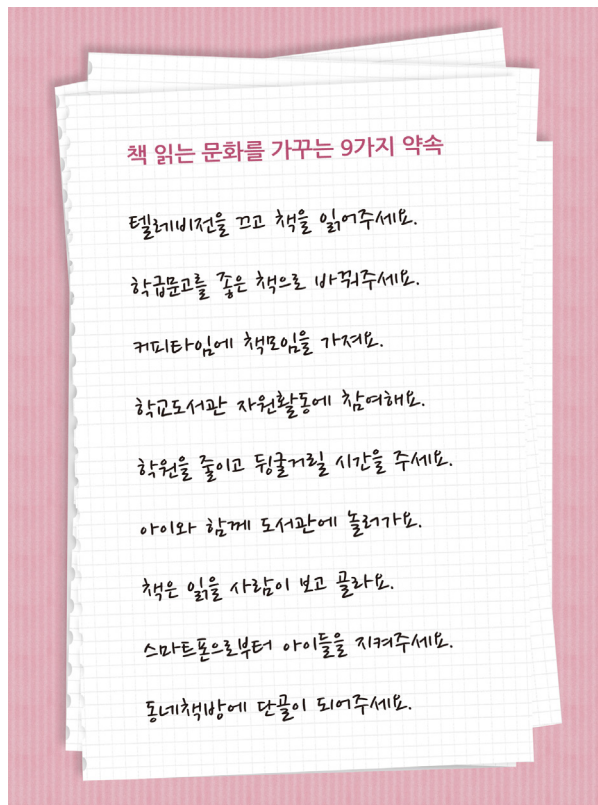
좋은 책을 펴내는 저자와 출판사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지역 서점이 살아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명한 소비자 운동을 벌입니다.

Q — 연구회의 올해 주요 활동(추진 활동)을 알려 주십시오.

해마다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발행하고 있습니다. 목록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읽고 골라 연령별 추천 목록을 만듭니다. 8만 부 제작하여 전국에 무료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을 다운 받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동화 읽는 어른』 정기 간행물 발행합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기관지로 그 달의 화두와 여러 갈래의 어린이 책 관련 글과 새로 나온 책 소개, 어린이 책 문화 활동, 회원들의 삶을 담은 생활 글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 책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책 읽어주세요’와 ‘옛 이야기 한 자리’ 쪽지를 통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칩니다.

2020년에는 ‘세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한국 그림책 100선’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공공 도서관에 메일로 안내하여 한국 그림책을 적극 알리려고 합니다.

5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함께 공동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화 100년, 으랏차차 우리 동화’라는 제목으로 한국 동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동화를 소개하고 적극 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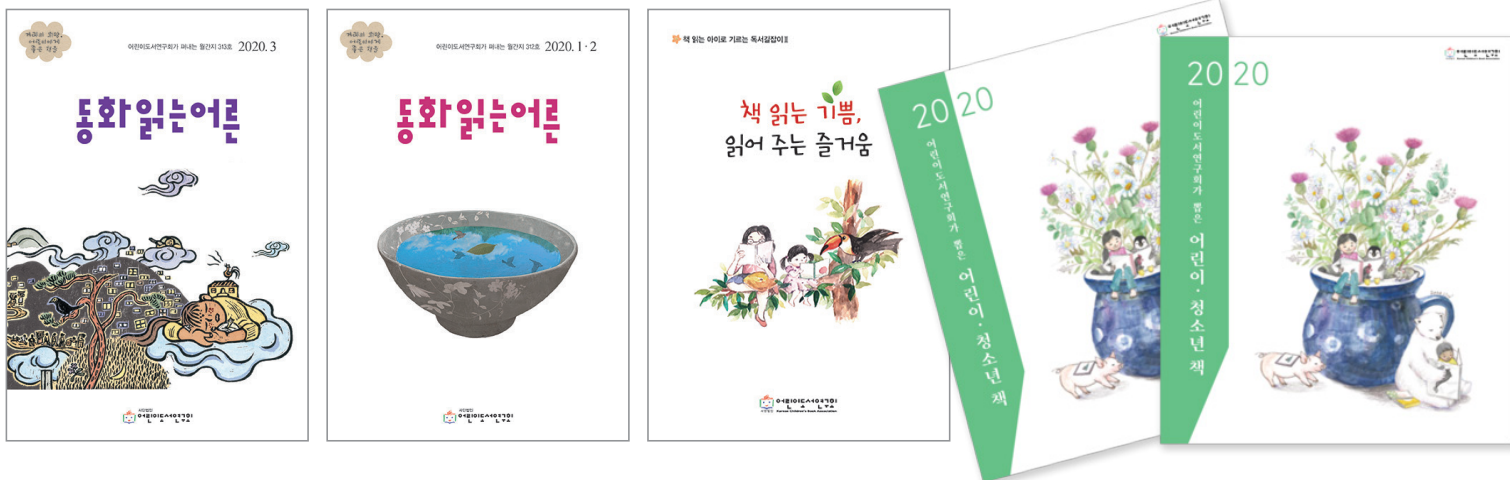


자 준비한 전시입니다. (전시 기간: 5.6.~8.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층 전시실. 코로나로 전시 관람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년 진행하던 동화동무씨동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동화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어린이 책 모임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많이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라도 학교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들이 학교나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동화동무씨동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기 혹은 취소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도서연구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로 연기한 4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어린이 독서 인식 변화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록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긴 역사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각 지역에서 책 읽어 주기 활동과 책 보내기 사업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Q — 연구회 선생님들은 책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또 그것을 수업과 교육 활동으로 연계, 활용하시는지요?

김명수 현재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 삶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로서 사회인 학습을 경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책은 개인이 성장하는 다양한 단계에서 경험, 관계, 사회를 보는 창을 감성적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반적으로 책을 통해 생각을 끌어내고 연관된 활동을 하고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나진경 수업 초반 동기 유발에 책을 투입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감성을 자극하곤 합니다. 또 학습 목표와 관련된 책이라면 수업 전반에 그림과 글 모두를 활용하여 완성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자연 과학이나 예술 관련 책들도 초등수업에는 유용한 학습 내용 자체가 됩니다. 또 어떤 책은 학습의 문화가 되어 가치관을 형성하고 놀이나 생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윤숙 어린이 책을 만난 지 15년이 되어 갑니다. 어린이 책을 읽으며 각 교과, 주제와 어떻게 연결 짓나를 고민합니다. 교사의 말보다 아름답고, 아이들 마음과 닿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어린이 책을 읽을 때는 책 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모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책을 통해 삶을 나눕니다. 내 삶을 들려주고 아이들 삶을 묻습니다. 그냥 물었을 때보다 책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요즘은 좋은 어린이 책을 발견하면 교과서 대신 텍스트로 온전히 사용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하려고 활동을 구성합니다. 언어 활동이 서툰 아이들과 동시를 함께 읽고, 그림책을 함께 읽습니다. 긴 책은 부모님들께 하루에 하나씩 읽어 달라 부탁드립니다.

김정화 책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한다기보다는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서 자칫 책의 감동과 재미보다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 찾기 등 순수한 책의 세계로 빠져들지 못하고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체해서 수업 목



표에 도달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책 자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주저하게 됩니다. 수업 동기 유발할 때, 그림책의 경우 그림 기법을 미술 시간에 활용,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어 줍니다. 대부분 책 읽어 주는 활동을 합니다.

지선명 배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공감과 소통이 우선이기에 독자와 책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은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확장시켜 줍니다. 게다가 감동이라는 속성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어린이 책을 수업과 연계해서 꾸려 나가면 아이들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배움을 확장시킬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Q —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김명수 연구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이라는 목적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줄 수 있는 학교와 사회 외적인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어린이가 좋은 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넘어서 어린이가 좋은 책을 통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은 늘 교사로서 출발점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나진경 사람과 생각을 얻었습니다. 교사사회 동화밥그릇에서 제2의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들을 나누면서 다른 생각들도 만나게 되고 생각이 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윤숙 무엇보다 사람이지요. 도서관에서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을, 모임에서는 책과 아이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함께했던 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아쉽긴 하지만 그것이 든든한 바탕입니다. 어린이 책을 만나며 어릴 적 나를 만나 위로하기도 하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 아동문학교육과를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책방을 찾게 되고,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는 것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권정생 선생님과 임길택 선생님요.

김정화 동화를 알게 되었고 올바른 독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동화를 좋아하고 관심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읽지 못했다면 꾸준히 책을 읽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도 혼자했다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지 못했을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선명 수단이나 목적으로서가 아닌, 책 그 자체에 빠져 읽고, 읽어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급 아이들에게 그저 좋은 책을 많이 읽어 주고 있고, 한 작품을 수업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성취 기준만 달성하면 오롯이 책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 경험이 쌓여 책을 어떻게 아이들과 읽을 것인지 매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을 통해 내 안의 아이도 만나고, 관심이 같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로서 다양한 배움도 얻으며 늘 성장하는 인간이 되게 해 줍니다.

Q — 앞으로 연구회의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학부모와 교사 회원들이 매주 모여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책 모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국에 3천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모여 어린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독서 문화 운동입니다. 어린이 책을 읽은 힘은 회원들의 성장과 함께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독자로서, 어린이 책 활동가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책 문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책, 동화, 동시, 옛이야기, 책읽어 주기 활동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좋은 어린이 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좋은 책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목록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나눌 것입니다. 어린이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며 어린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과 만나는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좋은 책을 온라인으로 적극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년별, 연령별 좋은 책 목록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목록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동화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좋은 동화는 훌륭한 문학입니다. 어린이는 살아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할 때 어린이는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책을 평생의 친구로 여깁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동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학생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삼백이의 칠일장』(1. 얘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2. 삼백이도 모르는 삼백이의 이야기, 문학동네, 천효정 지음)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유는 그저 단순히 책을 덮을 때까지 손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고 동물과 삼백이의 인연이 수수께끼처럼 연결되어 뒹굴거리며 보기에 딱 좋습니다.

이윤숙 요즘 아이들과 학급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동시집을 두 권씩 골라 가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동시 한 편을 돌아가며 나눕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날도 있고, 하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스스로 동시 한 편을 골라 친구들에게 배달하는 아이들이 예뻐합니다. 시 공책에 정성껏 옮겨 적는 손길도 예뻐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가끔 그렇게 여유를 부려 봅니다. 어떤 책이든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자 도서관에서도 책을 볼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책을 책장을 넘겨 읽는 게 최고지만요.

김정화 ▶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줏대 없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SF에 빠져 있어서 최근에 읽은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열세 번째 아이』(문학동네, 이은용)라는 책입니다. 디스토피아이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묘한 책입니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작가의 힘도 있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입니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요즘에야 읽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되는 책은 언젠가 늘 만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지선명 ▶ 새로운 국면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껏 활용하지 않은 기기나 매체 사용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될지라도, 사람의 목소리와 지면을 넘기는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방식과 방법이 다를 뿐 행위는 같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고 싶은 책을 읽어 주는 영상물을 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권하는 책은 주로 앞부분이라도 읽어 주고, 읽도록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흥미나 재미보다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책을 권하면 좋겠지요. 연구회에서 권하는 책들은 대부분 마음이 잘 통해서 연구회 목록을 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화동무씨동무책 목록은 아이들이 추천한 책이라 추천 소감을 읽어 보면 아이들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시 읽어 보고는 학급이나 학년에 맞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교과서가
궁금하세요?

교과서의 모든 것

TIOS에서 해결하세요!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One-Stop Service

교과서 구입·주문, 수정·보완, 내용·정보, 파본·교환, 정책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IOS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합니다.

교육현장에 수정·보완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상시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한 교과서 질 관리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의 수정·보완 내용이 궁금해요.

이전 교과서에선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었나요.

교과서 상세 정보가 필요해요.

교과용도서 규정·법·시행령은 어디서 확인하지?

(교육부/시·도교육청/발행사와 함께)

현장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교과서 활용 정보 제공

전문적 검토

업무 내실화

시스템 개선

지원체계 확립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현행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 이전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 교과서 정보 검색 | 교육 관련 법규 | 교과서 편수 자료/집필기준 | 교과서수정·보완이란?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은

지식 및 정보의 증가, 급속한 사회변화

등에 따른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보완하여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알려줌으로써 교과서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 합니다.

교과서 정보 검색

도서명 검색

교과서 편수자료

교과서 편수자료 검색과 e-Book 서비스

교육 관련 법규

교육 관련 법규

FAQ 자주 묻는 질문

Quick Menu

교과서민원 바로처리센터 (TIOS)

사이트 맵

알림마당

2019-08-07

2019-07-01

2019-05-31

POPUP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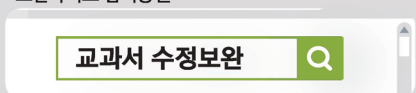
교과서 정보 검색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수정·보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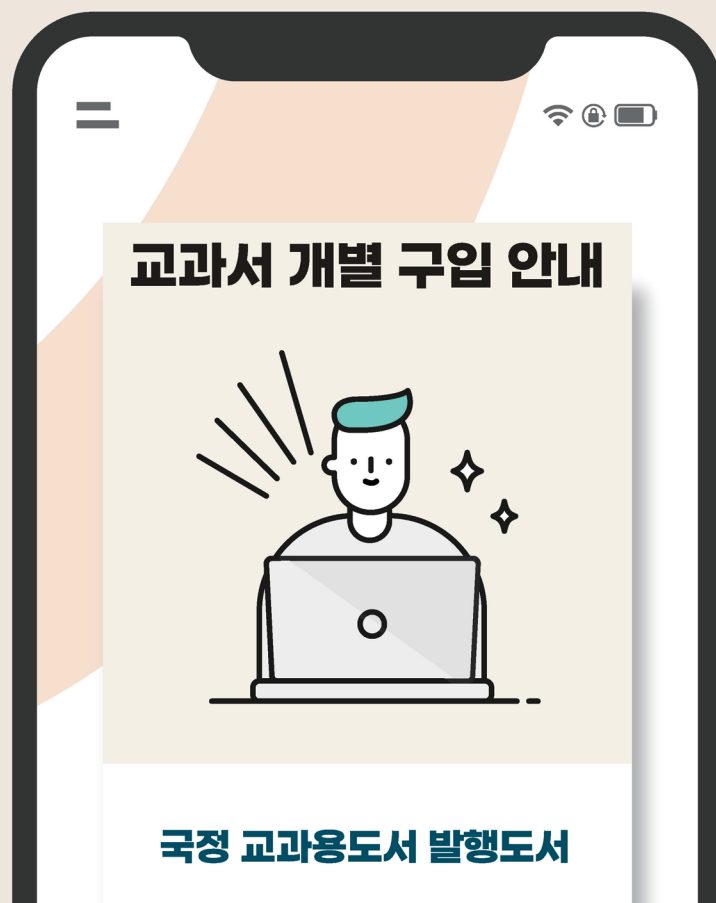
인터넷 주소창엔



포털사이트 검색창엔



TIOS 상담전화 **1566-8572**



학교급	과목명	발행사	온라인 쇼핑몰	전화번호
초등학교	국어(국어 활동 포함)	(주)미래엔	http://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수학(수학 익힘책 포함)	(주)비상교육	http://textbook.visang.com	1577-0554
	사회(사회과 부도 포함), 도덕	(주)지학사	http://www.jihak.co.kr	02-330-5303
	과학(실험 관찰 포함)	(주)천재교과서	http://www.chunjae.co.kr	02-3282-8751
	통합 과목(봄, 여름, 가을, 겨울), 안전한 생활	동아출판(주)	http://www.bookdonga.com	1644-0600
특수	초·중·고 특수학교 교과서	(주)미래엔	※ 별도 전화 문의	1800-8890

- 서울 지역 국정 교과용도서 전과목 직매장 : (주) 미래엔 1층(02-3475-4097)
- 국·검·인정 교과용도서 온라인 판매 :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www.ktbook.com)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	서점명	연락처	주소
서울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빌딩 지하1층
	교보문고(강남점)	1544-19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교보문고(잠실점)	1544-19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교보문고(목동점)	1544-1900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교보문고(영등포점)	1544-19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교보문고(합정점)	1544-19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딜라이트스퀘어 1단지(B2F), 2단지(B1F)
	그랜드문고	02-938-1065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53 세신빌딩 지하1층(중계동 360-7)
	노원문고	02-951-0633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지하 1층)
	서울문고(신세계강남점)	02-530-071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센트럴시티 지하 1층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종로)	02-399-5625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지하 1,2층(서린동)
	영풍문고(코엑스점)	02-6002-270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몰 지하1층 H106)
	영풍문고(미아롯데점)	02-944-265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62, 6층 롯데백화점미아점
	영풍문고(여의도)	02-6137-5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IFC몰 지하2층)
	영풍문고(용산아이파크몰)	02-2012-0828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
	예림문고 천호점	02-477-8600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4(천호동 지하 1층)
인천	교보문고(인천점)	1544-1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지하1층
	부평문고(인천)	032-529-00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대전	계룡문고	042-222-46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삼성생명 지하1층(선화동)
	타임문고 시청점	042-489-5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9, B101호(메디빌딩)
세종	세이북스(세종)	044-864-443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54 흙플러스 2층
광주	영풍문고(광주터미널점)	062-364-0210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터미널 1층(광천동)
	종합도서(광주)	062-222-435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68(장동 12번지) 1층
대구	영풍문고(대구대백점)	053-431-0882	대구시 중구 동성로 30, (동성로2가) 대구백화점 지하1층
	예스서적	053-637-3004	대구시 달서구 상인서로 107
부산	영광도서(부산)	070-4020-25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영재서적	051-703-07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3, 2층
	영풍문고(부산대점)	051-590-830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NC백화점 5층(장전동, 뉴코아부산대점)
	북컬처	051-205-899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65, 2층 203, 204호
	교보문고(부산점)	1544-19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1층, B1층 (부전동)
울산	교보문고(울산점)	1544-1900	울산광역시 남구 회합로 185 업스퀘어 B1
경기	경기서적(수원)	031-248-6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8, 2층
	경인문고(부천)	032-329-1677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지하1층 부천소풍터미널
	일지서적(광명)	02-2613-2744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7(철산동) 일청빌딩 1층
	교보문고(안양평촌점)	1544-19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 평촌점 6층

지역	서점명	연락처	주소
경기	교보문고(판교점)	1544-19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지하2층 판교바로 드림센터
	대동서적(안산)	031-406-666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35(사동)
	동원서적(구리)	031-563-4621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0
	수지문고(용인)	031-265-4031	경기도 용인 수지구 문정로 46 지하 1층
	송문당(의정부)	031-846-2666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10번길 42
	북스리브로(분당야탑점)	070-4726-28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BYC빌딩 지하1층
	대신문고(리브로평택점)	070-4726-2848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민자역사 3층
	정글북(일산)	031-922-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주엽동 한솔코아 B1)
	중원문고(성남)	031-708-65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0 도도빌딩 지하1층(이매동 131-5 지하1층)
	영풍문고(수원NC점)	031-267-555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NC몰 5층
	영풍문고(스타필드하남점)	031-8072-8450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스타필드 3층(신장동, 스타필드)
	한가람문고(시흥)	031-404-0161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 7길 33 디아망타운 B02호(대야동)
	동탄서울문고	031-378-1508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34, B1, 129호(청계동, 카림애비뉴)
	열린문고(김포)	031-982-2007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9(북변동 사우테마프라자Ⅱ 지하1층)
강원	교학사(춘천)	033-254-4133	강원도 춘천시 전원길 15
충남	국민도서(천안)	041-558-00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101 불당프라자센터 지하1층
	교보문고(천안점)	1544-19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충북	유신상사(청주)	043-256-2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15(북문로2가 116-102)
	이학사(충주)	043-844-3493	충북 충주시 충인1길 52
전북	홍지서림(전주)	063-231-47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6
전남	중앙서림(순천)	061-723-9902	전남 순천시 연향상가 5길 7(연향동)
	책사랑문고(목포)	061-279-25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285-1
경북	경산서적.성암교재(경산)	053-815-2724	경북 경산시 경산로 160
	학원사(포항)	054-249-3396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66(남빈동)
	제일서점(경주)	054-742-4885	경북 경주시 화랑로 106
	세종서점	054-442-7200	경북 구미시 백산로 54(송정동 11-3)
경남	영풍문고(마산롯데점)	055-240-569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신포동2가, 롯데백화점 지하2층)
	대양서적(진주)	055-741-2835	경남 진주시 축석로 183(중안동 1-3)
	창원서적(창원)	055-263-56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3번길 14, 1층
	서울문고(신세계김해점)	055-272-1465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32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4층 서울문고
	세종서관	055-382-7799	경남 양산시 양산역 4길 13 세종서관(중부동, 2층)
제주	현대서점(제주)	064-748-1177	제주시 남녕로 36 영진빌라 106호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연구논문], [현장교육],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야기], [교과서 개발자 이야기]

참여 방법

[e-mail로 원고 및 의견 전달]

- 보내실 곳 : bjj819@textbook114.com
- 문의전화 : 02-6202-6362 『교과서연구』
- 트위터 : @textbook_03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이제 교과서 원문 DB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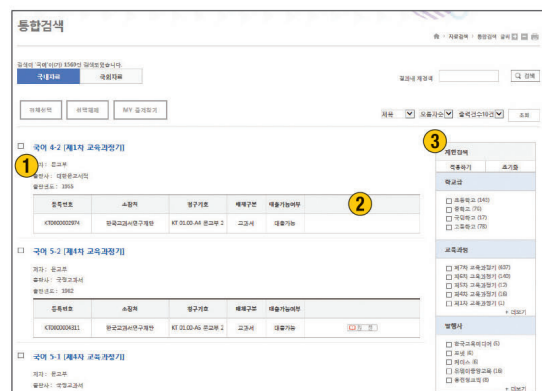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 ① **페이지 주소창** - <https://www.kotry.kr>를 통해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
- ②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며, 메인페이지에서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도서관안내 > 교과서정보협력망 > 협약도서관안내)
- ③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 ④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간략 서지 정보 화면의 제한검색에서 '원문'의 '있음'을 체크한 후 상단의 '적용하기'를 선택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 ① **간략서지정보** - 검색 결과가 보여주는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보기'란에 목차/원문/참고문헌 아이콘이 게재됨
- ② **온라인 보기** - 자료별 원문, 목차 아이콘이 표시되는 곳. 원문 목차가 없을 경우 비워있으며, 로그인해야 활성화 됨
- ③ **제한검색(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학교급, 교육과정, 발행사, 저자별, 년도별, 원문 유무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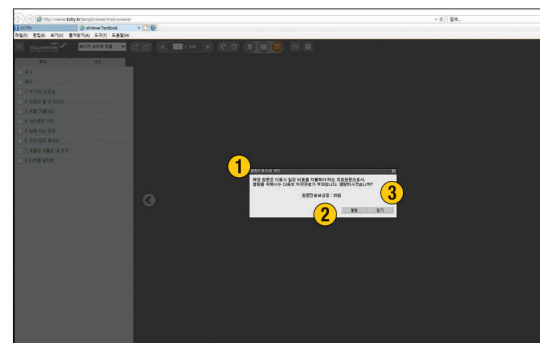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 ① 상세검색 결과 - 간략서지정보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 및 MAR보기, 즐겨찾기 추가, 자료예약 등이 가능함
- ②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등 확인가능
- ③ 유사콘텐츠 - 해당 도서와 유사 콘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자료명을 선택하면 해당 도서 정보로 이동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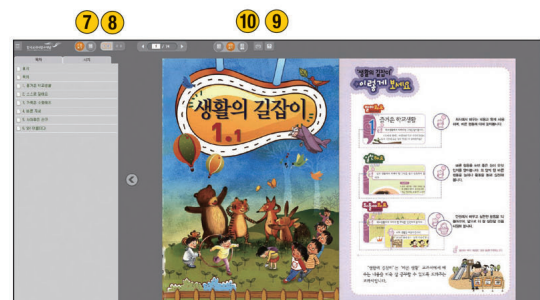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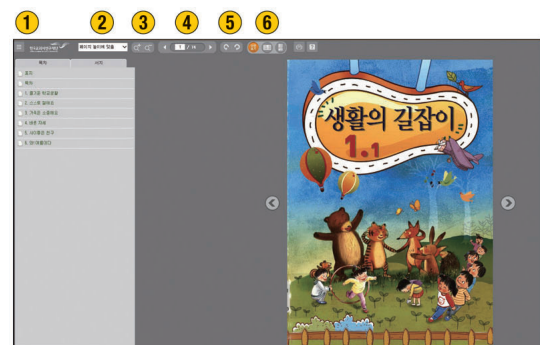
원문이용시 이용요금 확인

-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선택시 저작권법 안내, 이용 요금에 대한 안내 확인
-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 불의사가 있을 경우 '열람'을 선택하여 원문을 열람
- ③ 달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 불의사가 없을 경우 '달기'를 선택하여 창을 닫음



원문부어 이용

- ① 목차 및 서지정보 - 원문의 목차 및 서지정보표시
(목차 선택시 해당 페이지 이동)
- ② 화면배열 선택 - 페이지 높이에 맞춤/페이지 너비에 맞춤/
50%/100%/200%/300% 선택
- ③ 확대/축소 - 원문 이미지 확대 및 축소
- ④ 페이지 이동
- 이전 페이지 (◀) / 다음페이지 (▶)이동
- 해당 페이지 직접 이동시 페이지 번호 입력 후 엔터
- ⑤ 회전 - 원문 이미지 회전(좌우 회전)
- ⑥ 보기 설정 - 원문 이미지 페이지 보기 설정
* 단면보기/양면보기/세로보기 선택
- ⑦ 제본 설정 - 원문 이미지 제본 설정
* 좌철보기/우철보기 선택
- ⑧ 제본페이지 설정 - 원문 이미지 좌우 정렬설정 변경
- ⑨ 도움말 - 통합 뷰어 이용 안내
- ⑩ 인쇄 - 원문 이미지 출력



교과서 원문DB 이용 협약 체결 안내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교과서 8,607권(미군정교수요목기~2007개정 교육과정기), 외국교과서 899권(7개 국가)를 원문 DB화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대상

-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 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 ② 협약 완료 후 재단으로 이메일 통보 또는 협약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02-6206-6357, editor@textbook.ac)
- ③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협약 담당자에게 협약서 및 등록서 전송 요청
- ④ 협약서 및 등록서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재단 협약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 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kotry.kr/libfee/>)에 접속하여 도서관기호 및 등록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 ⑥ 사용하고자 하는 좌석의 IP정보를 입력 후 담당자에게 통보

협약체결 기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신라대학교 도서관, 목원대학교 도서관, 중앙승가대학교 도서관, 경기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수원박물관, 용인대학교 도서관, 한국스포츠개발원, 부산대학교 도서관,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그리스도대학교 도서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 목포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도서관, 한영신학대학교 도서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나사렛대학교 도서관,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교육부 디지털 도서관, 강원대학교 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정보자료실, 충남대학교 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원주시립도서관, 성산도서관(창원시도서관사업소),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김포도시공사 통진도서관, 창원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수정분관,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당진도서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자도서관, 송림도서관,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학술정보관,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한국개발연구원(글로벌지식협력단지), 충남도서관, 양천도서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대학교 도서관,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춘천교육대학교 도서관, 성공회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협약기관 체결 순)

“교과서와 함께 만드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여정”

배우고 깨우치는 기쁨,
때로는 길을 잃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해냈다는 성취감.

가르침과 배움은
여행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모든 여정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지학사 교과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학사

질문을 깨우다 미래를 깨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미래엔은 세상에 없던

무엇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깨우고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 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미래

미래엔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배우는 모든 콘텐츠
미래엔

